국풍으로 보는
조선의 모습

평 양 출 판 사
주체109(2020)년

국풍과 민족의 흥망성쇠

(머리글을 대신하여)

무릇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론할 때면 국력을 떠올리군 한다.

국력의 강약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멸망이 좌우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사에 치욕의 자욱을 남긴 조선봉건왕조시기를 보아도 그렇고 지난 시기 많은 나라들이 국력이 약해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 수난에 찬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한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도 국력이 강하지 못하여 대국들에게 자주권과 발전권을 빼앗기고 현대판노예의 치욕을 당하고있는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의 현실이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론함에 있어서 국력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국풍이다.

일반적으로 국풍이라는것은 나라의 풍속으로서 온 사회를 지배하며 정세와 환경이 달라지고 세대가 바뀐대도 변하지 않는 그 나라 특유의 전인민적인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생활방식의 총체이다.

이러한 국풍에는 그 나라의 력사와 전통, 민족의 넋과 숨

결이 깃들어있을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세계관과 인생관, 지향과 념원 등도 반영된다.

나라와 인민의 사상과 정신, 미래를 가늠할수 있는 징표로 되는 이 국풍이 어떠한가에 의하여 해당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는가 아니면 망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로서 민족사에 자기의 자욱을 뚜렷이 새긴 천년강국 고구려(B.C. 277년—A.D. 668년)의 력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력사를 놓고보아도 고구려와 같이 근 천년동안이나 존재한 국가는 그리 흔치 않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구려가 강대국으로서 근 천년이라는 력사를 남길수 있은것은 이 시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과 군사를 중시하는 상무기풍,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기풍이 사회전반에 지배했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나라방위를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간주하고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웠으며 무술경기들을 자주 진행하군 하였다.

마을들에 세워진 경당(고구려시기 청소년들에게 글과 무술을 가르치는 민간교육기관의 하나)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글과 함께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 씨름, 손치기(수박)와 같은 무술을 배워주었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이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도록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민간오락과 경기들도 무술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런 기풍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주몽전설》, 《류리왕전설》과 같은 전설들과 고국원왕릉, 덕흥리무덤, 세칸무덤을 비롯한 고구려시기의 무덤의 벽화들에도 그대로 반영되여 당시의 상무기풍이 어떠하였는가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고구려사람들속에서는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며 위해주는 도덕의리심, 따뜻한 인정미가 진하게 흘렀으며 고구려는 동방례의지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던 외국사람들도 《고구려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며칠씩 재우면서 밥을 해주고 앓으면 치료까지 해준다.》, 《혼례나 상례 같은 대사때에도 서로 도와주며 어떤 집에 불이 났거나 다른 고장 사람이 그 마을에 이사오면 제각기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주고 집도 지어준다.》, 《이웃사람들이 앓게 되면 약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약을 가져다주며 소가 있는 사람들은 논밭갈이도구는 물론 소까지 전혀 대가없이 빌려준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도덕의리에 대한 글까지 남기였다.

집안의 가풍이 훌륭해야 가정의 모든 일이 잘되듯이 건전하며 아름답고 훌륭한 풍조가 국풍으로 되여 사회전반에 차넘칠수록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번영한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높은 애국심과 상무기풍,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기풍과

같이 훌륭한 기풍이 나라의 풍조로, 국풍으로 되여있었기에 고구려가 중세기에 벌써 그 어떤 외적도 범접할수 없는 강국으로, 동방례의지국으로 이름떨치고 강대국으로서 근 천년이라는 국가존립과 발전의 력사를 자랑스럽게 새길수 있은것 아니랴.

한 나라, 한 민족의 사회적풍조인 국풍, 나라와 인민의 사상과 정신, 미래의 징표로 되는 이 국풍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주는 영향은 이렇게 크다.

국풍이 훌륭해야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수 있다.

국풍이 건전하지 못하면 강력한 경제군사력도 맥을 추지 못하고 나아가서 국호마저 빛을 잃게 된다.

옳바른 국풍확립이야말로 국가의 부흥과 멸망을 좌우하는 중대사이며 국풍이 바로선 나라가 진정한 강국인것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그 누가 흉내낼수도 없는 자랑스러운 국풍들이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정을 같이하고 생사운명까지도 함께 하며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고 인민과 군대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추동해가고있는것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고있다.

자주성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남달리 애국심이 높으며 투쟁하기 좋아하고 단결력이 강하며 화목하게 사는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훌륭한 국풍들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인재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인민의 강렬한 지향이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풍, 국풍으로 확고해지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국가의 상징들을 신성하고 소중하게 여기고있으며 공화국의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존중하는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이 계속 수립되여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손길아래 태여나고 보다 더 공고해지는 이런 자랑스러운 국풍들이 있기에 공화국은 창건된 그날부터 70여년동안 내외의 온갖 도전과 시대의 역풍을 과감히 짓부시며 자기식의 발전궤도를 따라 끄떡없이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오늘날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려정에 들어섰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조선에서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온 력사적과정에 형성되고 보다 더 공고해지고있는 이런 훌륭한 국풍들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발양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이고 자기의 힘으로 기어이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강렬한 지향으로 심장을 끓

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운명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정치무대에서 조선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서는 대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조선은 세계가 공인하는 기적의 나라, 불패의 나라, 막강한 국력을 가진 위대한 나라로 급부상하였고 조선민족은 흥하고 번영하는 민족, 위대한 태양의 민족으로 세계에 그 이름 자랑떨치고있다.

진정 조선이야말로 자랑스럽고 훌륭한 국풍이 많은 위대한 나라, 불패의 강국이다.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창조되고 더욱 공고화되여가고있는 공화국의 국풍, 사회주의조선의 자랑이고 긍지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조선의 국풍들가운데서 그 일부를 여기에 펼쳐본다.

도서에 엮어진 공화국의 국풍들을 통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있는 조선의 참모습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차 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 일체를 이루고

인류력사에 국가가 발생하여 수천년세월 그 어느 나라나 사회의 단합과 단결에 대하여 모색하여왔고 나름대로의 노력도 기울여왔다.

단결이 국가의 강약과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기때문이다.

하지만 단결에 관한 수많은 정치강령과 리념들이 출현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폭제와 폭정으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어느 나라도 진정한 단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직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조선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혼연일체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공고한 일심단결,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까지도 함께 하는 혼연일체의 고귀한 전통과 위력은 세인이 경탄하는 우리 공화국의 제일가는 재보라고 말할수 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워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 이것이야말로 오직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혼연일체의 화폭이며 주체조선의 제일가는 국풍이다.

사상도 뜻도 생사고락도 함께

공화국의 제일가는 국풍인 혼연일체는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도 뜻도 생사고락도 함께 하는 가장 공고한 단결이라는데 그 근본특징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공화국의 무한대한 힘의 근본원천이며 공화국정권은 이 위대한 일심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의 력사를 빛내여가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이 걸어온 70여년력사는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성다해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전통이 대를 이어 계승되고 보다 더 공고발전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라고 할수 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여온 나날에 창조된 수령과 인민사이의 혼연일체의 전통은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도 그대로 계승되였다.

새 조국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조국이 해방된 후 언제인가 쏘미공동위원회 미국대표단 단장이였던 브라운이 바지저고리에 조끼차림인 최재린농민에게 조선에 어떤 림시정부를 세웠으면 좋겠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최재린농민은 즉석에서 《그거야 더 말할게 있소. 우리 인민들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주신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시는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세워야 하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미국대표는 미국식《민주주의》가 이렇소, 저렇소 하면서 한바탕 장광설을 늘어놓고나서 평양시장에 나가보니 무엇이 어떻더라고 하면서 농민을 업수이여기려고 하였다.

미국의 한다하는 외교관과 학교라고는 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이제 겨우 성인학교에서 문맹을 퇴치한 순박한 농사군사이의 대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최재린농민에게 쏠리였다.

최재린농민은 브라운에게 당신네 나라에는 농민들에게 땅을 거저 나누어주는 법이 있는가, 로동자들에게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는 법은 있는가, 남녀평등권법령이 있는가고 하며 이렇게 따져물었다.

《왜 대답이 없소.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자 당신이 미국은 인민들이 잘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로동자, 농민, 녀인들을 내놓고 인민이란 어떤 사람들이요?》

그의 이렇듯 떳떳한 언행의 근저에는 다름아닌 로동자, 농

민을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새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진정이 깊이 깔려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충성으로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의 애국충정의 열기가 어떠한가 하는것은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5월에 진행되였던 보통강개수공사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보통강개수공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강에 서린 인민의 원한의 력사를 끝장내고 이를 봉화로 자연개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시려 몸소 발기하신 대자연개조사업으로서 70여만㎥나 되는 흙을 퍼올리고 5 000m의 제방을 쌓아야 하는 그야말로 방대한 공사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이 주인된 세상을 세워주시였으며 착공식장에 나오시여 몸소 첫삽을 뜨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애로와 난관은 많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해방된 조국을 자기의 손으로 건설하겠다는 기개와 투지, 자기의 힘으로 조국의 새 력사를 창조해야 한다는 자각과 결의로 대자연정복에 떨쳐나 있는 지혜와 열정,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인민이였다.

인민들의 이렇듯 높은 애국의 열기, 충성의 열의로 일제

와 반동들이 《조선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비웃던 보통강개수공사가 예정로력공수의 절반밖에 안되는 공수로, 그것도 기일을 15일이나 앞당겨 55일만에 끝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것은 수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기풍이 확립될 때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받드는 인민의 충성의 마음은 가렬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나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도 변함이 없었다.

사람의 진가는 평온하고 순탄한 시기보다 제일 어려운 시기에 명백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소달구지를 끌고 힘겨운 후퇴의 길에 올랐던 강원도 법동군의 어느 한 로인은 짙은 어둠속에서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가고 물으시는 그이께 북으로 간다고, 군대동무들과 같이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간다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진정에 넘친 대답을 올리였었다.

전후복구건설시기 태성리의 한 할머니가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말씀은 또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것인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공화국에서의 전후복구건설시기로

말하면 세계전쟁사에 없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야만적인 무차별폭격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로 된데다 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쳐야 하는 어렵고 간고한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태성할머니는 위대한 수령님께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어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일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는가고 하며 《우리는 수령님을 지지합니다.》라고 말씀을 올리였다.

법동로인이나 태성할머니로 말하면 모두 한생을 농사로 살아온 평범한 농사군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반드시 승리하며 그이를 따르는 길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신념이 뿌리깊이 자리잡고있었다.

이들만이 아닌 공화국의 전체 인민이 수령에 대한 수정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과 충성의 마음을 간직하고있었던것이다.

그 마음과 마음들이 합쳐져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기어이 승리하고 전승의 신화를 안아왔으며 공화국의 존엄을 지켜냈다.

자기 수령을 신념과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충성심이 있었기에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강선의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고 김철의 19만t능력의 용광로에서 27만t의 쇠물이 쏟아져내리는 신화가 창조될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기양과 덕천에서는 간단한 소농기구나 만들고 자동차수리나 하던 자그마한 공장들에서 30여일만에 첫 뜨락또르를, 40일만에 첫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냈고 몇해가 걸린다던 해주—하성철길부설공사를 단 75일동안에 끝낸것을 비롯하여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전변들을 안아왔다.

수령과 인민이 하나로 뭉친 혼연일체의 위력에 떠받들려 공화국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냄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웠다.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하였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다.

일편단심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며 받들어나가는 혼연일체의 기풍은 조국에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변함없이 발휘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상실의 아픔이 가셔지기도 전에 들이닥친 류례없는 자연재해, 공화국을 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고립압살책동, 잇달아 겹쳐드는 혹심한 식

량난, 연료난, 동력난으로 숨죽은 공장들과 불꺼진 거리들…

이 전대미문의 난국은 공화국에 있어서 커다란 시련으로 되였으며 매 가정, 매 사람의 생존자체를 엄중히 위협하는 고난과 애로는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었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쓰러져 영영 일어서지 못하였을 이처럼 어렵고 힘겹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조선인민은 배고프다고 하여, 어렵다고 하여 붉은기를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곳을 넘겨다보지 않았다.

살아도 죽어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을 따라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로 걸어갈 철석의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조국, 장군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으며 오로지 그이만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며 그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냈다.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는 고난의 그 시절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고귀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싸운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청년영웅도로건설에 참가하였던 한 처녀돌격대원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있다.

《체질로 말하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처녀들이였지만 그래도 남자들에게 지고싶지 않았다.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 처녀들이라고 왜 남자들에게 뒤지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과 꼭같이 마대를 지고 달렸다. 그런데 마대를

자꾸만 떨구는것이 안타까웠다. 너무도 속상해 눈물까지 흘렸다. 입술을 꼭 다물고 마대를 원망스레 바라보던 그 순간 아버지장군님께서 나를 지켜보고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입술을 앙다물고 마대를 끌고 갔다. 그러면서 난생처음으로 마대와 말을 해보았다.

<마대야! 넌 왜 내 마음을 이다지도 몰라주니. 도와주렴. 장군님께로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

그리고 다시 마대를 메려고 하니 어데서 그런 힘이 솟구쳐올랐는지 남자들 두명이 맞들어 메워주던 마대가 나 혼자의 힘으로도 씽 어깨에 오르는것이였다.》

어렵고 힘겨울수록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부강을 위해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런 불굴의 신념, 불같은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였기에 력사에 류례없는 모진 고난속에서도 2년도 안되는 기간에 100여리의 청춘로반을 닦을수 있었던것이다.

어찌 청년들만이랴.

발전소건설장의 언제우로 흙마대를 메고 한치한치 오르면서도, 한겨울의 차디찬 물속에서 전투를 벌리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던 건설자들,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일터를 뜨지 않고 쓰러지면서도 기대를 돌리던 로동자들…

이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의 열기가 끓고있었다.

한 문필가부부는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린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믿어주십시오. 장군님!

저희들은 굶어죽으면 죽었지 장군님을 간직한 이 심장은 절대로 팔지 않을것이며 얼어죽으면 죽었지 장군님품을 떠나 남의 집 지붕밑으로는 한발자국도 들어서지 않을것이며 단두대우에서 맞아죽으면 죽었지 장군님노래를 순간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심장속에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선 천만인민의 위력은 세계를 놀래웠다.

공업발전을 위한 자원도, 농사지을 번듯한 포전도 별로 없고 다른 지대와의 생산적련계를 발전시킬 교통조건도 불리한 산간지대인 자강도에서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고귀한 투쟁정신인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그를 봉화로 전국에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타올랐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성강의 봉화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고 경제부문에서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나가기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서 수많은 공장들이 창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

며 생산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의 경제적토대가 한층 다져지고 강국건설의 도약대가 마련되였다.

그 나날에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동해안에 대규모 소금밭이 생겨나고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정리되였으며 10년이상 걸린다고 하던 개천—태성호물길공사가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완공되여 우리 식의 독특한 자연흐름식관개체계가 확립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1998년 8월 31일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올랐고 강선에서는 자체의 설계와 기술, 자체의 힘으로 단 몇개월사이에 우리 식의 현대적인 초고전력전기로가 일떠서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받들며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굴함없이 헤쳐온 천만인민의 애국충정의 열기속에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뜻도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가 되여 가슴아픈 희생과 형언할수 없는 고난과 역경도 뚫고 헤치며 혼연일체의 고귀한 전통과 위력을 빛내였으며 이를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더욱 승화시키였다.

력사의 준령을 넘으며, 년대와 년대를 이으며 굳건해진 혼연일체의 빛나는 전통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이르러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되고있다.

12월의 피눈물의 그 언덕우에서 우리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새겨진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백두의 혈통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 어린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겠다는것이였다.

이렇듯 진실하고 열렬한 맹세로 가슴 불태우며 전체 인민은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새로운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신뢰심을 지니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오로지 그이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는것이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전체 인민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있는것이 사회주의조선의 국풍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지난 8년간의 나날에 이 땅우에서는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졌던가.

전세계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특대사변으로 평하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광장에서 희세의 위인을 우러러 터친 만세의 함성은 위대한 수령님들

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불패의 위력의 힘찬 과시였다.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따르려는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는 인민이기에 조선로동당 제4차대표자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해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함으로써 혼연일체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단결이 가장 공고한 단결이다.

하늘땅이 바뀌고 역풍이 불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인민의 믿음과 의리는 추호의 변심을 모르는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악랄한 도전과 압살책동으로 하여 전례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비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만을 떨쳐가고있다.

그 비결은 바로 천만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확신에 넘쳐있기때문이다.

적대세력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제재봉쇄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모습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온 나라 인민의 충성의 마음과 마음에 떠받들려 전설속의 무릉도원으로 천지개벽된 삼지연지구의 전변을 놓고봐도 그렇다.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린 조종의 산 백두산을 머리에 이고 아득한 천고의 밀림을 울바자로 두르고있는 삼지연지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항쟁사가 깃들어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대전의 총성을 들으시며 성장하신 백두산밀영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이다.

삼지연지구를 잘 꾸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며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이다.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주하고있는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이의 구상과 의도대로 삼지연지구를 훌륭히 꾸리려는 한결같은 의지를 안고 너도나도 달려나갔으며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백두의 이깔마저 얼어터지는 령하 40℃의 강추위와 한여름의 폭우속에서도 변함없이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땀과 열정을 바치며 새라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여온 인민들, 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성과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정성다해 지원

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준 인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에 떠받들려 삼지연지구가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답게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로 천지개벽될수 있은것이다.

2018년 8월 삼지연군(당시)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40일만에 삼지연읍지구건설장에 와보았는데 그사이 몰라보게 변모되였다고,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산간문화도시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백옥같은 충성심으로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이 힘찬 투쟁을 벌려온 결과 드디여 웅장한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들끓는 건설장전역을 바라보시며 당의 부름따라 지금 온 나라가 여기로 달려와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자기 집 뜨락처럼 정성다해 꾸리며 순결한 량심과 의리의 땀방울을 뿌려가고있다고, 백두산천지의 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한들 어찌 저들의 티없는 충성의 땀방울에 비기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있다고, 저렇듯 훌륭한 인민과 함께라면 이 세상 그 어디라도 두렴없이 갈것이라고,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장군님의 충직한 아들딸들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령도자가 바라는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결

사관철의 투사들, 령도자의 결심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창조의 거인들이 공화국의 인민이다.

령도자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천지개벽의 눈부신 현실을 펼치고 령도자가 의도하고 바라는것이라면 무연한 과수바다도, 이채어경도 펼쳐놓는것이 조선인민이다.

언제나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자기 일터와 초소에서 성실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이 있기에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끄떡없이 세인을 놀래우는 민족사적인 사변들을 다발적으로 안아올수 있었다.

인민을 위해 바치는 령도자의 헌신이 고결하고 베푸는 정이 뜨거울수록 그에 보답하려는 인민의 충성의 열도는 강렬해지는 법이다.

언제인가 외국의 어느 한 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숭고한 인덕과 인민관을 지니신 애민형의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진정한 애민정치를 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건물을 하나 지어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이 편리해하는가를 물으신다. 그이께서는 활동의 대부분을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나라의 방방곡곡 인민들을 찾는것으로 보내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것을

강조하신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무한한 사랑에 감복되여 인민들은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언제 어느때나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인민의 령도자와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충성을 다하는것을 인생의 제일 큰 영광으로,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고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귀중한 청춘도 서슴없이 바쳐 자기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는 불굴의 영웅들, 파도사나운 망망대해에서 38시간동안이나 표류하면서도, 횡포한 자연의 대재앙속에서도 가장집물이 아니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굳건히 보위한 신념의 강자들, 절절한 그리움으로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의리의 인간들이 바로 공화국의 인민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아무리 령토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며 방대한 경제군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령도자와 인민의 사상의지적단합이 실현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맥없이 무너져버린 나라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조국앞에 가로놓인 난관이 엄혹할수록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단결의 위력으로 투쟁하며 전진하여왔으며 령도자를 신념으로 받들고 따르는 인민의 충성의 마음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하늘땅 끝까지!

이것이 오늘날 자기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으로 가슴 불태우고 뜻도 마음도 생사고락도 함께 하며 령도자를 받드는것을 피와 살속에 체질화한 전체 인민의 심장의 뜨거운 분출이다.

혈연의 정으로 뭉쳐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받드는 길에서 전체 인민이 한모습으로 살고 한본새로 일해나가는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

이는 조선의 제일가는 국풍인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혼연일체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며 커다란 감화력으로 세계를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세계가 조선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혼연일체의 나라》, 《일심단결은 조선사회의 가장 큰 위력》,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강국》이라고 격찬하고있다.

하다면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령도자와 인민의 위대한 혼연일체가 무엇으로 하여 그렇듯 공고하고 강한가 하는것이다.

여기에 그에 대한 해명을 주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몇해전 《로동신문》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이 실

렸었다.

신문을 통하여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또 하나의 선경으로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오며 인민들은 환성을 터쳤다.

그도 그럴것이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신문에서 뵈온 때로부터 하루하루를 그리움과 기다림속에 맞고 보내던 인민들이였다. 이러던 그들이 그리도 고대하던 경애하는 원수님 소식에 접하였으니 이날을 맞이한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이 컸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못사는 인민이여서, 자애로운 어버이의 소식을 하루라도 못 들으면 가슴이 타서 못 견디는 인민이여서 신문게시판들앞에 어깨성을 쌓고 서서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를 가슴에 안고안으며 기쁨과 환희에 설레였고 환하신 영상을 우러르고 우러르며 눈시울을 적셨다.

령도자의 해빛같은 미소가 인민들의 간절한 그리움을 풀어주었고 그이의 미소로 하여 인민의 생활에는 활기와 랑만이 가슴벅차게 더해졌다. 길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엔 환희가 비꼈으며 걸음마다에는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거리의 화대에 피여있는 꽃들도 봄을 다시 맞은듯 생기가 한껏 흐르는것 같았고 천진란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여느때없이

아름답고 유정한 노래소리마냥 들려왔다.

온 나라의 모든것이 더욱더 밝아졌고 모든것에 활기가 더해졌다.

이에 대해 《로동신문》은 《정말 뵙고싶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전체 인민이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한초가 하루같고 하루가 한달같이 여겨지던 나날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뵙지 못하면 잠 못 이루고 당보 지면에 실린 그이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하면 새 힘이 용솟음쳐 승리를 확신하는 전체 인민이다.

우리모두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그이의 안녕만을 바라며 방선천리의 초소들마다에,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들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을 뵙고싶은 마음 산처럼 쌓고쌓아온 우리 조국이였다.

그런데 모두가 바라던 그 소원을 과학자들이 먼저 꿈같이 이루게 될줄 누가 알았으랴.

…

인민의 마음을 씻어주는 저 하늘의 태양이런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맑은 가을하늘아래 펼쳐진 방대한 규모의 주택지구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쁨과 즐거움속에 맞이하게 되는 그

련 날이 적지 않다. 뜻깊게 맞는 명절도 있고 기념일도 있으며 흥분과 격정, 기쁨과 환희로 맞고 보내는 날들도 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날, 즐거움속에 맞이하는 날은 바로 자기 령도자의 소식을 받아안는 날이며 신문과 방송, TV를 통하여 그이의 현지지도소식을 접하고 해빛같은 미소를 또다시 가슴에 새기는 날이다.

자기 령도자와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인민이여서 부모를 그리워하며 따르는 자식들처럼 친어버이의 현지지도소식을 받아안고 그이의 환하신 모습을 뵈오며 그리도 기뻐하고 행복에 젖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혈육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으며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사이에 흐르는 정만큼 순결하고 뜨거운것이 없다.

그렇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조선의 혼연일체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오가는 뜨겁고도 열렬한 혈육의 정으로 하여 그렇듯 공고하고 강한것이다.

권력과 황금으로도 살수 없는것이 인민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오직 온 나라 인민을 보살피는 열화의 정과 사랑만이 인민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고 그 마음속에서 열렬한 흠모와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만민에게 사랑과 믿음을 베푸는 수령의 숭고한 인덕이 집단과 온 사회에

아름다운 충성의 세계를 펼칠수 있고 수령에 대한 인민의 충성이 혼연일체의 대화폭을 펼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던 이민위천의 사상.

여기에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숭고한 애민정신이 담겨져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가장 위대하고 성스럽게 여겨왔다.

이러한 하늘숭배의식을 리용하여 지배자들은 자기를 천자로 묘사하였고 신권을 통치수단으로 삼았으며 백성우에 군림하였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은 곧 하늘이라는 지론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던것이다.

이렇듯 인민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쳐가시는 인민의 어버이의 인정미에 끌리여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친정집 아버지로 따르고 마음속진정을 숨김없이 아뢰며 혈연의 뉴대를 이어왔다.

수령과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혼연일체의 자랑찬 력사를 돌이켜보느라니 나라가 해방된 후 평강군의 평범한 녀

성농민이 문맹을 퇴치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제손으로 써서 올렸던 편지의 글줄이 안겨온다.

《…**김일성**장군님!

오늘이야 겨우 편지를 올리게 되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석달후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신 말씀을 받들고 저는 자나깨나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마음먹고 달라붙어 우리 글을 한자한자 배우던 이야기며 농사를 잘 지어 만기작물현물세를 선참으로 바친 이야기, 소도 매고 돼지도 먹이니 참 재미난다는 이야기며 마을에 중학교도 세우고 목욕탕도 지었다는 이야기 등 가정과 마을의 형편이 상세하게 씌여져있는 녀성농민의 편지.

석달전에 문맹자였던 산골마을의 농촌녀성이 쓴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 편지를 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앞으로 일을 더 잘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여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회답을 보내주시였으니 그 사랑과 정에 이끌려 이 녀성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혈연의 뉴대를 잇고 뜻과 정을 나누며 새 조국건설에 모든것을 다하였다.

그속에는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지어는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 김규식과 같은 완고한 민족주의자들도 있었다.

그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포용력과 뜨거운 인정미에 끌리여 그이의 품에 안기였고 혈연의 정을 두터이 하며 부강조국건설에 헌신하였던것이다.

수령과 인민사이에 흐르는 사랑과 정은 이렇듯 진실하고 뜨거운것이였으며 이 혈연의 뉴대는 엄혹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나 시련에 찼던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도,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도 변함이 없이 굳건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만지는 그 혈연의 정에 이끌려 세상사람들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 수많은 재일조선공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력사적사변도 일어날수 있었다.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광폭정치, 인덕정치로 하여 더욱더 공고해졌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에 산천초목도 슬피 울던 비분의 그 나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과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의리와 정, 하늘같은 믿음으로 더욱 굳게 결합되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한돐을 하루 앞둔 1995년 7월 7일의 그 가슴뜨거운 화폭을 잊지 못하고있다.

이날 금수산기념궁전(당시)개관을 앞두고 시운전중에 있던

궤도전차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달리고있을 때였다.

차창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온 인민들 속에서 《장군님이시다!》 하는 웨침소리와 함께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이어 주변에서 지대정리를 하고있던 대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이 두손을 높이 들고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궤도전차로 달려왔다. 공원에서 일하던 사람들뿐아니라 장군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숨가삐 달려온 군중들까지 합쳐져 인민의 환호성은 더 높이 터져올랐다.

궤도전차안에서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펼쳐진 이런 광경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차창너머로 손을 흔드시였다.

앞을 보지 않고 장군님만 보며 달려오다 꽃나무에 걸려 어푸러지고도 다시 일어나 종주먹을 부르쥐고 그냥 달려오는 소년들,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장군님만 믿고 삽니다.—》라고 웨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한채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며 달리는 궤도전차를 따라서던 수많은 인민들…

따라서는 인민들을 바라보시며 이젠 그만들 하라고, 그러다 넘어지겠다고 손저어 만류하시며 인민들과 떨어지는것이 아쉬우신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

그로부터 이틀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만나신 자

리에서 그때의 광경을 돌이켜보시며 녀성들과 아이들,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이 궤도전차가 있는데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자기 령도자를 따르는 진심이 어려있었다고, 자신께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인민들이 정말 좋은 인민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끼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정녕 이날에 펼쳐진 광경은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을 감동깊이 보여주는 력사적화폭이였다.

어찌 이들만이랴.

머나먼 두메산골까지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랑림군인민들, 최대의 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까지 찾아오신 그이를 우러러 소리없이 두팔을 높이 쳐들고 눈물로 만세를 대신하던 판문점군인들, 열병식과 군중시위장들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눈굽을 적시던 인민들과 군인들, 자기들의 집을 찾아오신 그이의 팔에 매달려 친정아버지를 만나뵈온 심정으로 태여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달라는 무랍없는 청을 드린 녀성…

온 나라 인민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를 자기 집과 일터에 모실 영광의 그날을 기다렸고 만나뵈오면 친아버지처럼 스스럼없이 안기고

천만가지 소원을 다 아뢰며 혈연의 정을 이어왔다.

수령과 인민사이에 흐르는 이 혈연의 정은 령도자가 조국을 떠나 멀리에 있을수록 더욱더 뜨거워졌고 이와 더불어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 굳건해졌다.

한 나라, 한 인민에게는 나라와 민족의 생활을 주도하고 시대를 진감하게 하는 주되는 사상감정이 있기마련이다.

령도자와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공화국의 인민들에게는 그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순결하면서도 강렬한 사상감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수령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사랑과 정을 바탕으로 하는 령도자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이다.

근면함과 슬기로움, 강인함과 순결함, 진실함과 외유내강 등 공화국인민들이 지닌 우수한 품성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하고 숭고한것이 바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열렬한 숭배와 한없는 그리움의 감정인것이다.

언제나 령도자를 그리며 혈연의 정을 이어가는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령도자와 멀리 떨어져있을 때면 더욱더 강렬하게 분출된다.

2001년 여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은 장군님과 인민간에 오고가는 그리움의 세계가 얼마나 절절하고 뜨거운것인가를 눈물겹게 보여준 계기라고 할수 있다.

7월 26일, 신문과 방송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찐대통

령의 초청에 의하여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게 된다는 보도에 접한 온 나라 인민은 그이에 대한 생각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시는 나날에 인민의 그리움의 정은 더욱 폭발되였다.

온 나라 인민이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구나 서로 만나면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으며 도시와 농촌,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마음은 그이께서 계시는 이국땅의 하늘가에만 가있었다.

그리움은 인간이 지닌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사랑의 감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을 기다리는 그리움, 련인에 대한 그리움이 제일 강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혈육이나 련인들의 그리움보다 더 강렬하고 더 순결하며 변함이 없는 그리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기 령도자에 대한 공화국의 인민들의 그리움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이 뜨거운 정은 온 나라 인민을 기적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다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온 나라가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으로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공식방문소식에 접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김철의 로동계급, 새로 수백만t의 탄발예비를 찾아낸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앞당겨 실천하고 그이께서 돌아오실 날만을 기다린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과학자, 기술자들과 협동벌의 농장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이 대외활동의 길을 걷고계시는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생산과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고 계순희선수는 세계유술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치였다.

이 지구상에서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흔히 보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공화국에서와 같이 령도자께서 가시는 길에 따스한 해빛만이 비쳐지기를, 그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꽃향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 큰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려는 전인민적인 감정이 활화산마냥 터져오르는 화폭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언제나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가슴속에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이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모시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데 있는 힘과 지혜,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있으며 그것을 도덕의리로, 본분으로 간주하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시며 수령님들의 위대한 존함과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는 우리 인민이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못견디게 그리워하며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절세위인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천만인민의 진정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인민들 누구나 현대적인 공장들과 멋쟁이 새 집을 일떠세웠을 때에도, 풍요한 과일작황을 펼쳐놓고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하는 생각으로 그리움의 바다를 펼치며 잠 못 이루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한없이 그리는 인민의 마음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의지를 굳게 하여주었다.

순결한 도덕의리로 걷는 유훈관철의 길이야말로 참된 삶의 길, 빛나는 승리의 길이라는 진리가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의 신념으로 자리잡고있으며 그 어디를 가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해나가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분투하고있다.

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변함없이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깨끗한 의리심은 세계를 감동시키고있다.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한때 탁월한 수령을 모신것으로 하여 명망높았던 나라들은 있었다. 하지만 온 나라 인민이 자기의 수령을 생존시에는 물론 서거후에도 변함없이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고 있는 나라는 일찌기 그 어디에도 있어보지 못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르는 인민의 그리움의 정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순결무구한 인민의 량심, 인민의 감정이며 수령과 인민사이에 오가는 혈연의 정이 있어 주체조선의 혼연일체가 그렇듯 공고한것이 아니랴.

수령과 인민사이에 흐르는 혈연의 뉴대는 오늘날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속에 나날이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고계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으며 병신자식일수록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으

로 인민의 운명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비록 그것이 작은것일지라도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데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분.

유희장구내의 보도블로크사이로 돋아난 잡풀을 보시고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포기, 한포기 몸소 풀을 뽑으시며 잡풀을 뽑는 일은 자금이 드는것도 아니라고,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일터에 대한 애착,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관점이 바로서있다면 일을 이렇게 할수가 없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인민들에 대한 복무정신을 똑바로 간직하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령도자의 따뜻한 인품에 매혹되여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랍없는 청을 드려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행복을 받아안고 자기의 빨간별자랑을 아뢰고싶어 아버지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고 사랑의 친필까지 받아안은 어린이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아이들, 온 나라의 인민들모두가 그이를 《아버지》라, 《어버이》라 부르며 따르고있다.

평범한 녀성비행사가 자기 령도자를 만나뵈온 자리에서 어려움도 잊고 태여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청을 드리고 평범한 연구사가 한달전에 태여난 아들애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청이 담긴 편지를 올리며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자기들의 자랑과 결의를 담은 편지를 령도자에게 올리는것이 너무나

도 범상한 소행으로 되는 나라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더우기 령도자가 인민들과 학생소년들, 어린이들이 허물없이 삼가 올린 편지를 일일이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며 은정을 베풀어주는 이런 나라는 더욱 없을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초월하는 순결하고도 열렬하며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이어져있는 공화국,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국풍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만이 이런 감동적인 화폭들을 그 어디에서나 목격할수 있는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끊을래야 끊을수 없고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혈육의 정, 그리움의 뉴대로 이어져있는 공화국의 인민이기에 누구나 그이를 뵈옵고싶은 마음 산처럼 쌓아놓고 행복의 그 시각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다. 그이를 만나뵈오면 품에 와락 안겨들고 헤여지는 순간이면 너무도 아쉬워 손목과 옷자락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혼연일체의 가슴뜨거운 광경들을 펼쳐놓고있는것이다.

몇해전 조선서해의 장재도에 펼쳐졌던 화폭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위험한 바다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섬을 찾아주시고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병사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며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고서야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바래드리려 선창으로

달려나온 군인들과 가족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배가 출발하자 차디찬 바다물에까지 뛰여들어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그이를 따라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8월 장재도에 왔다갈 때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허리치는 바다물속에 뛰여들어 오래동안 손을 저으면서 나를 바래워준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데 오늘 또 그들이 바다물속에 들어서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그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 뛰여들지 못하게 하도록 사랑의 명령까지 내리셨건만 친어버이를 바래워드리려고 따라나선 자식들의 격정의 분출이 어떻게 억제될수 있으랴.

몸은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로만 달리였고 꿈속에서도 만나뵈옵기를 간절히 소원해온 그들이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과 헤여지는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조금이라도 그이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싶은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기에 차디찬 바다물에 옷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이를 따라서는것이다.

장재도만이 아닌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령도자의 옷자락에 매여달리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헤여지기 아쉬워 그이를 따라서며 어린애마냥 발을 동동 구르고 두손을 높이 들

어 목청껏 환호를 올리며 그이께서 타신 차를 따라서는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혼연일체의 감동적인 화폭들이 펼쳐지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일터와 가정에서 저저마다 세계지도를 펼치여놓고 먼길 떠난 친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그이께서 가고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세웠고 부디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 이 나라의 인민들이다.

《래일도 날씨가 좋구만요.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는 곳도 여기처럼 날씨가 맑아야 하겠는데…》

《그곳의 날씨는 어떠할가? 제발 한줄기 비도 내리지 말아주었으면…》

사람들의 첫 인사말은 그이의 외국방문소식이였고 그 어디에서나 꽃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이야기였다.

먼길 떠난 아버지를 그리는 자식들의 마음이런듯, 어버이의 로고를 생각하며 그 진정에 목메이는 아들딸들의 심정이런듯 자기 령도자를 온넋으로 그리며, 걸음걸음 따라서며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던 인민들이기에 그이께서 조국에 돌아오시였다는 소식에 접하면 환호를 터쳤다.

꽃다발을 안고 달려온 어린이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아주시는 인자하신 모습, 외국방문의 길에 쌓이신 피로도 다 잊으신듯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마중나온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는 자애로운 모습…

그토록 기다려온 어버이의 모습을 뵈오며 조국강산은 기쁨과 환희로 들끓었고 인민의 가슴속에는 크나큰 기쁨과 뜨거움이 서리였다.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정에 시원을 두고있는 그리움, 사랑과 기쁨, 애틋한 추억과 간절한 기대, 소원과 축복 등 아름다우면서도 고상한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움의 감정이 한 인간, 한 가정, 하나의 작은 집단에서 형성되고 발현되는것은 어디서나 례사롭게 볼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못견디게 그리워하는것은 결코 례사로운것이 아니며 령도자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 인민의 그리움이 보다 더 강렬해지는것과 같은 혼연일체의 화폭은 오직 우리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이다.

공화국과 같이 령도자와 인민이 열화같은 정과 그리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전진동력으로 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언론들과 인사들도 《조선은 령도자와 인민의 관계가 매우 특이한 나라이다. 인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모시고 따르고있다. 령도자를 만나뵙는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여기고있으며 만나뵈오면 남녀로소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짓는것은 결코 권력의 힘으로나 강요로 지어낼수

없는 진실한 모습이다.》, 《조선사람들이 자기 령도자를 따르는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다.》, 《인민들이 령도자를 흠모하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나자신으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지 모를 지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며 령도자와 인민이 뜨거운 혈연의 정을 잇고 사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찬탄과 부러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흐르는 혈연의 정.

이것이야말로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단결의 원천이며 이것이 있어 조선의 국풍인 혼연일체가 그렇듯 공고하고 위대한것이다.

자주성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우리 공화국은 자주적대가 강하고 자기식의 발전궤도를 따라 굴함없이 전진해나가는 자주의 나라, 자력으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해가는 존엄높은 나라이다.

자주는 공화국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는 로선이며 자주적발전은 조선식사회주의의 생리이다.

공화국에서는 자주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힘들다고 주저앉는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뚫고나가는것이 인민들모두의 변함없는 투쟁방식으로 되고있으며 이러한 정신과 기풍자체가 전사회적인 풍조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롱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자력갱생의 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것이야말로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국풍이 아닐수 없다.

자주를 생명으로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이 있다.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국가의 부흥을 실현하려는 나라도 있고 막강한 경제력을 기초로 하여 발전을 이룩하려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전략도 자주의 원칙, 자주의 로선과 결합되지 못하면 기필코 실현될수 없을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모든 국가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모든것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자주!

이것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생명으로 되는것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사람답게 살수 없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면 제 할 소리도 똑바로 못하고 남에게 굽신거리게 되며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다.

공화국에서는 자주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국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으로 되고있다.

자주의 로선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새 력사,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이 땅우에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풍파사나운 세기의 한복판에서 수십성상 단 한번도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견결히 고수해오신 위대한 수령님.

하나의 로선과 정책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시였고 모든것을 조선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내세우시였다.

해방된 조국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새 조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신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조국해방위업을 민족자력으로 이룩한것처럼 새 조국건설도 자기의 힘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 민족자력의 정신이 깃들어있는 새 조국건설로선이야말로 해방된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명철한 대답으로 되였다.

매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는 국가건설의 총적목표와 방향을 결정해주는 기본설계도와 같은 건국리념과 로선에서부터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민족국가가 나아갈 앞길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민족에게 있어서 더욱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이 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비록 민족적독립은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발전의 길에서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으며 다시금 렬강들의 롱락물로 굴러떨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은 대개 대국들의 도움으로 건국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에 서 있었다.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서 건설한 사회주의를 그대로 모방이식하는 방식으로 건국을 하려고 하였고 또 어떤 나라들은 자본주의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이런데로부터 이 나라들은 자기의 건국로선에 대하여 똑똑한 일가견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은 물론이고 자력으로 자기 나라를 일떠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어린 항일혈전의 나날에 벌써 건국사업을 오직 자기의 독자적인 로선에 기초하여 자기의 힘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철석의 의지로 다지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딸린의 위임을 받은 이전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인 쥬다노브를 만나 담화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쏘련이 조선인민의 건국투쟁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묻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력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에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페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

이런 의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지 불과 5일만에 철저한 민족자주, 민족자력의 원칙에 기초한 건국로선을 제시하시여 해방된 조국에서 자주적인 건국의 장엄한 력사를 펼치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던것이다.

건국사업을 그 어떤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결심과 구상은 그후 새 민주조선건설로선과 토지개혁법령,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을 비롯하여 투철한 자주적원칙에 기초한 독창적인 로선과 법령들을 낳았고 그 생활력은 새 조국건설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온 나라 인민모두가 새 사회건설의 주인이라는 비상한 자각과 높은 긍지를 안고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건국로선을 받들어 새 조국건설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단결되고 조선사람의 힘으로는 돌릴수 없다던 공장들이 하나둘 일떠섰으며 건국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자주로선에 의하여 풀려나가는것과 더불어 공화국에서는 자주적인 새 민주조선의 힘찬 동음이 울려퍼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첫 페지를 자주로 자랑스럽게 펼친 공화국은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전 행정에서도 자주의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였다.

그 나날에 세계전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갱도전법과 같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전법들과 대전해방전투와 같은 현대포위전의 본보기가 창조되였다.

전후에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과 농업협동화방침을 비롯하여 우리 힘, 우리 손으로 전화의 재더미를 가시고 나라의 경제를 자력으로 일떠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이 제시되여 전체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켰다.

이뿐이 아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공업화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 자위적군사로선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제시된 로선들 그 어느것이나 자주성의 정신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자주로선들인것이다.

자주가 변함없는 정치리념으로, 제일생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기에 공화국은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난관을 박차고 일떠서 세계앞에 조선사람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그 무엇에 얽매이거나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선행리론이나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짧은 기간에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섰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자주로 존엄높고 자위로 강력하며 자립으로 부강하는 공화국의 국력을 온 누리에 떨치실 원대한 포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자주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시였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등의 구호들과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신념의 표대를 심어주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승전사를 새겨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사탕은 먹지 않아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으면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고 살아나갈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지켜 다박솔초소와 오성산의 칼벼랑길, 1211고지와 대덕산의 최전연초소들을 찾아 끝없이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천만리길이 있었기에 조국과 인민의 자주권은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변함없이 추켜드시였던 자주의 기치가 있어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그 어떤 봉쇄와 제재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힘찬 진군길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것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경제문제도 주체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에서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시였다.

경제문제도 주체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에서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자체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우리 식이고 주체식이라는것을 철석의 신조로 삼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경제적예속이 정치적예속으로 이어지는것은 시간문제이며 정치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인 국가나 인민이 자기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경제만이 참다운 자기의 재부로 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그 토대를 착실히 쌓아나가는데 있는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려워도 힘겨워도 우리 힘으로 자기 삶을 창조하고 우리 식으로 경제건설을 해나가는 자주, 자력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시였다.

첨단이라는 말을 외우기에는 닥쳐온 시련이 너무나 참혹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부강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피눈물을 삼키시며 헤쳐가신 그 길에서 자력갱생승리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고 그날의 얼마 안되는 자금이 조국의 백년천년을 담보하는 힘으로 장성하였다.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는 자강도에로의 현지지도길과 끝없이 이어가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장정과 더불어 고난의 행군에서 락원의 행군에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강행군전투가 힘차게

벌어졌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비롯한 자주의 로선들이 관철됨으로써 공화국에서는 강국건설의 려명을 안아오는 력사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이렇듯 자주의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나날에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는 자주적인 인민으로 성장하였다.

공화국은 시종일관 자주의 기치를 고수하고 자주의 기치로 전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걸음걸음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였다.

오늘날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의 총대로 후손만대를 담보하는 조국번영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주체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공화국의 불변의 진로로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자주강국건설의 로정도를 환히 밝히시는 그이의 탁월한 예지와 전략전술은 나라의 국력을 더욱 비축하고 자력갱생의 활

로를 열어놓았으며 준엄한 시련과 도전을 자강력을 배가로 증대시키는 계기로 전환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이렇게 천명하시였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됩니다.》

공화국앞에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인다고 하여도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 자주적존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는다는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 우리의것, 우리 식이 제일이며 주체조선의 모든것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족적자존심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관통되여있는 사상정신적핵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투쟁의 기본주제는 자주냐 예속이냐 하는것이다.

대국들에 기대를 걸고 제힘을 키우려 하지 않는 나라들, 남만 쳐다보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가지고있던 전쟁억제력까지 포기한 결과 침략의 희생물이 되여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의 참화에 빠져든 나라들의 처지가 보여주는것처럼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면 예속의 길을 걸어야 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오늘 공화국은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굳센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자주의 험로역경을 꿋꿋이 헤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자주를 제일생명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기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지나온 수년간 공화국앞에는 국가와 인민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운명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였으며 복잡다단하고 착잡한 정황들이 수시로 발생하였다.

그때마다 공화국은 자주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기 실정에 맞는 가장 옳바른 전략전술과 정세흐름을 주도하는 담대한 결단으로 모든 기회를 국가의 힘을 상승시키는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로 전환시켰고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한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최후발악적인 도전에 대처하여 과감히 선택한 병진로선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 등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그 하나하나가 자주를 생명으로 하여 국가의 자립적발전과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전략전술로 일관되여있다.

더우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은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라고 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것이다, 우리가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것, 다시말하여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것, 이것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사상, 기본정신인것이다.

제국주의련합세력들의 횡포무도한 폭제를 기어이 끝장내기 위해 미증유의 제재압박봉쇄를 강행돌파하시며 끝끝내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틀어쥐시고 오늘은 공화국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과의 정면돌파전을 선포하신 그이의 신념과 드센 배짱은 자주가 공화국의 변함없는 정치로선으로 될수 있은 근본요

인으로 되였다.

민족자주, 민족자존은 목숨보다 귀중하며 설사 굶어죽고 얼어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것이 자주적인 신념, 민족적자존심이라는 령도자의 혁명신조.

오늘의 투쟁에서 객관적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을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 객관적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한다는 령도자의 자주의 신념.

이 땅에 남의 식은 존재할 자리가 없으며 우리의것, 조선의것은 반드시 세계첨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령도자의 애국의지.

제재따위로 감히 우리 공화국에 참을수 없는 도전을 가해온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도 방관시할수도 없다는 억척의 의지를 안으시고 온 나라에 자립, 자력의 열풍을 더욱 거세차게 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이는 조선식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는 승리의 리정표이고 온 나라에 주체화의 불길,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창조하기 위한 거세찬 열풍을 일으키는 추동력이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자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필생의 의지를 안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그 어떤 격난과 난파도속에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한길로 끄떡없이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신념과 의지,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가는 공화국의 현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자주를 신념으로, 의지로 간직하신 절세의 위인을 수령으로 모시고있기에 공화국은 오늘도 자주를 변함없는 로선으로,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정책을 하나 세워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환경, 조건에 맞게 세우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고있다.

오직 자력갱생으로

오늘 공화국에서는 자기 힘을 믿으면 나날이 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는것이 인민들모두의 확고한 관점으로 자리잡고있으며 자력갱생을 기적과 번영의 보검으로 간주하고 자립, 자력으로 모든것을 해결해나가는것이 사람들의 생활로, 생명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발전력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자력갱생으로 전진하고 승리하여온 력사, 자력갱생이 온 나라 인민의 생활로, 생명으로 확립되여온 력사라고 할수 있다.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심한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띠고있던 경제마저도 일제가 패망하고 도망치면서 혹심하게 파괴하여 복구하기가 참으로 막막하였다. 여기에다 복구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자재 등 모든것이 매우 부족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새 조국건설에 용약 떨쳐나섰다.

남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공장을 복구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며 또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신심이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가득차있었다. 이는 그대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제힘으로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여 민족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로 타번졌다.

함경북도의 로동자들이 《우리의 힘으로 건국의 연기를 뿜자!》라는 구호를 들고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파괴된 공장을 정비복구하는 투쟁에 떨쳐나설 때 철도부문 로동자들은 《철도를 우리 손으로 복구하자!》라는 구호밑에 복구위원회, 철도보선대, 복구돌격대 등을 뭇고 적지 않은 구간에서 철도운행을 보장하였다.

자기의 힘과 기술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로자들의 대중적투쟁과 함께 자기 힘을 발양하기 위한

애국운동의 열기속에 보통강개수공사, 삼신운탄선공사, 단천항수축공사, 압록강호안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공사장들에서 련이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 전국도처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는것과 더불어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 및 창설되여 생산을 시작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된것을 비롯하여 정연한 교육체계가 확립되여 제힘으로 민족간부를 양성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일제로 인한 파괴의 흔적이 가셔지고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동음, 새 조국건설의 힘찬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졌다.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울렸던 자력갱생의 동음은 전화의 포화속에서 군자리정신과 같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창조하였고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는 페허우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그 불길속에 강선제강소(당시)의 로동계급이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며 전기로를 복구하여 정전후 단 40일만에 첫 쇠물을 뽑았고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들은 공장복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1953년 9월 전기로의 조업식을 가지였다.

이뿐이 아니다.

흥남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복구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2년만에 비료폭포를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전후복구건설로 들끓는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눈부신 기적과 변혁들이 일어났다.

공화국이 걸어온 자력갱생의 길은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전인미답의 생눈길이면서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험난한 길이였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준엄했던 1950년대 중엽을 잊지 못하고 있다.

조선은 기계공업건설이 아니라 쎄브의 국제분업에 참가하는것이 더 유리하다. 조선에서 자동차 몇천대나 만들어 어떻게 수지를 맞추겠는가. 쎄브에 들면 쏘련에 큰 발전소를 건설해놓고 조선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해줄수 있다. 콕스탄과 원유도 대줄수 있다. …

이것이 대국주의자들의 요구였고 강요였다.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쎄브에 들 생각이 없다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우리 식대로 건설하면서도 잘 벌면 잘 먹을수 있다고, 우리는 당신들의 신세를 지면서 단꺼번에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1층짜리 집을 짓고 그 다음 경험을 얻어 2층짜리, 5층짜리 집을 짓는 식으로 점차적인 방법으로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해버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추호도 드팀없는 자주, 자립의 신념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사회주의를 보란듯이 건설하여올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소극과 보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오물들을 대하의 거품마냥 시대의 기슭밖으로 밀어내며 세기적인 기적들을 안아올수 있었다.

기양에서 35일만에 뜨락또르가, 덕천에서 40일만에는 첫 화물자동차가 태여나고 룡성에서 작은 선반기를 가지고 8m타닝반을, 서평양철도공장(당시)에서 구내용기관차나 겨우 만들던 설비를 가지고 《기계공업의 정수》라고 하는 전기기관차를 단 한해동안에 만들어낸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수많은 성과들은 모두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의 결과인것이다.

모든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더욱 체질화되였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자력갱생이 사람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난국을 앞장에서 뚫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간 자강도인민들의 투쟁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자강도는 원래 산골지방인데다가 불리한 기후조건으로 하여 농사가 잘 안되는 곳이여서 자강도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다른 고장들보다 식량고생을 더 많이 하였다.

식품 아닌 《대용식품》이라는 말도 이 시기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그러나 거름짐을 지고 농장밭으로 나간 사람들, 쓰러지면서도 기대를 돌린 사람들이 바로 자강도사람들이였다.

부족한것도, 어려운것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남을 쳐다본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창조해나갔다.

자체의 힘으로 언제를 쌓았고 수력발전설비들을 만들어냈으며 곳곳에 중소형발전소들과 산뜻한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우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렸다.

어찌 자강도인민들뿐이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다녀가신 후 매일 매 시각을 위훈과 창조로 빛내여 몇달동안에 그 전해의 생산량과 맞먹는 강철을 생산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성강의 로동계급, 한달 남짓한 사이에 로들의 가동률을 높여 쇠물을 꽝꽝 뽑아낸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단

위들의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철도운수부문과 농업부문, 주요대상건설장들의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을 기적과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모든 곤난과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강계정신에 이어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함남의 불길과 같은 자력갱생의 봉화들이 련이어 타오르고 온 나라에 자력갱생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시련과 난관의 두터운 얼음장이 산산쪼각났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과 겹쌓이는 자연재해속에서도 공화국은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활성화의 길에 들어섰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대고조가 일어났다.

하다면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과 기풍에 있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처해있던 엄혹한 시기에 백두밀림에서 항일선렬들이 간직하였던 자력독립의 정신이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온 전 과정에 자립, 자력의 기치로 더욱 굳건히 계승되여왔다.

남들이 도와주면 좋고 설사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인민자

체의 힘으로 나라를 찾아야 하며 또 찾을수 있다는것을 드팀없는 신조로 간직하고 자체로 무기와 피복을 만들어낸 투사들의 투쟁정신이 빈터우에서 제손으로 민주의 터전을 다지고 모진 난관이 중중첩첩 가로놓이던 전후의 시련속에서 천리마가 날게 하였다.

화약제조과정에 일어난 폭발로 두눈을 잃고도 비관하거나 락심하지 않고 굴함없이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혁명의 1세들의 그 정신과 투쟁기풍이 그대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게 한것이다.

한평생 정치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천만고생을 다 이겨내시며 온 나라에 자력갱생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인민의 심장속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을 심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이 땅에서 제것을 가지고 제힘으로 떳떳하게 살아나가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자력갱생의 고귀한 전통과 기풍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와서 보다 높은 경지에서 발휘되고있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것을 창조해

나가는 열기로 세차게 끓고있으며 어디서나 자력갱생창조열풍이 휘몰아치고있다.

강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자립, 자력의 열기가 세차게 끓어번지는 속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눈부신 전변이 펼쳐지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막아서는 고난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며 자체의 힘, 자기식의 창조본때로 투쟁해나가는 천만인민의 애국적열의와 더불어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밑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땅우에서는 우리가 만든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 자동차와 뜨락또르가 달리는것과 같은 자력갱생의 고귀한 결실들이 날에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창전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문명의 창조물들은 물론 과학기술전당, 평양교원대학, 순천린비료공장, 마식령스키장,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류경안과종합병원과 같은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자력갱생창조대전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려 보란듯이 일떠섰다.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압살책동으로 시련과 난관이 더해만 가도 자력으로 만난을 이겨내며 승리를 향해 정면돌파해나가는 사회적기풍이 더욱더 확고해지고있다.

— 남을 쳐다보면 약자가 되고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강자가 된다.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고 바로 여기에 나라와 민

족의 높은 존엄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바로 이것이 자력갱생이 사회의 확고한 풍조로 되여있는 우리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이다.

국내원료로 질좋은 물비누제품들을 마음껏 만들어내고있는 룡악산비누공장의 현실을 놓고서도 민족자존의 정신으로 자기의것을 창조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의 열도를 잘 알수 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룡악산비누공장에서는 비누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자기들이 만든 제품에 다른 나라의 원료가 들어가고 또 그렇게 만든 제품에 《룡악산》상표를 붙일 때마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어떻게 하나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명상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결심이고 의지였다.

하기에 그들은 우리 나라에 흔한 수유나무열매기름을 리용하여 원료문제를 해결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마침내 국내의 자원에 의거하는 천연계면활성제를 개발하게 되였다. 하여 위생안전성과 질적수준에서 수입원료로 만든것에 못지 않은 질좋은 여러가지 물비누들을 이제는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자원, 자기의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값비싼 감수제를 비롯한 타일원료들을 100% 국산화하여 타일원가를 낮추고 생산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고있는 천리마타일공장과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부품진주암과 부품질석, 대형보온벽판, 지붕재들을 비롯한 다종다양하고 각이한 색갈의 마감건재들을 생산하고있는 청진스레트공장.

우리의 흙과 돌로 각종 위생자기와 화분을 비롯한 도자기제품들을 발전된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내고있는 나래도자기공장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중요원료문제를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있는 대동강축전지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자력갱생창조대전의 앞장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지금 날로 커가는 공화국의 위력앞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며 어떻게 하나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인민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여기에 강국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음을 진리로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자강의 길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오직 곧바로 나가고있다.

오직 자기의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

제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없던 길도 생기지만 남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열렸던 길도 막힌다는 투철한 신념이 억척으로 자리잡고있다.

남의 덕으로 가는 길, 남의 도움으로 안아올린 창조물에는 순간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참다운 긍지와 보람은 없다. 어려워도 보람넘친 길이 자력갱생의 길이라는것이 사람들 누구나의 절대적인 진리로, 과학으로 되여있다.

자력갱생이야말로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인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식이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 번영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도라는 사고관점과 투쟁기풍이 전사회적으로 보다 굳건해지고있는것이다.

무엇을 하나 건설하고 생산하여도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리익,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기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며 곤난이 겹쌓인다고 주저하고 동요하거나 뒤떨어졌다고 락심하지 않고 자기 힘을 끊임없이 키워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

이것이 전사회적인 기풍, 전인민적인 풍조로 더욱 공고해지는것과 더불어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보다 활력있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조선의 자력갱생이야말로 세월의 그 어떤 변화에도 끄떡없을뿐아니라 더욱 증대되며 새로운 기적을 안아오는 신비한 힘, 강국건설의 힘있는 동력인것이다.

자력갱생이 기적과 번영을 안아오는 보검으로 공고해지고있는 여기에 공화국의 진모습이 있고 이 세상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높은 존엄과 불패의 힘이 있으며 후손만대가 복락할 미래가 있다.

세계의 수많은 통신, 방송들도 자력갱생의 열풍속에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눈부신 전변을 이룩해가는 공화국에 대하여 《조선은 자력자강으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나라》, 《조선인민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힘과 지혜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신념의 강자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모든것을 창조해나가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 《조선이야말로 불패의 힘을 가진 위대한 나라, 전도가 양양한 강국》이라고 하며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오늘도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일념으로 애국의 땀과 피타는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남달리 높은 애국심을 안고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애국이라고 볼 때 애국심이란 한마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애국심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그것이 발현되는 계기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바로 여기에 조국을 진정으로 위하는 애국이 있는것이다.

조국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고 사회주의 우리 집이 든든해야 오늘의 삶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담보된다는 진리를 새겨안고 직업과 일터, 나이는 서로 달라도 자기 손으로, 자기의 피땀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꾸려나가는 애국자들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인민들모두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하는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더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는것이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국풍으로 되고있는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참모습이 있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예로부터 설음중의 설음은 나라잃은 설음이고 눈물중의 눈물은 나라를 빼앗긴 인민이 흘리는 피눈물이라고 하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인민의 피눈물나는 해방전 생활과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유린당하고있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가 보여주는것처럼 나라를 잃으면 설음과 치욕으로 가득찬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삶의 터전이며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는것이 애국중의 애국,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되고있으며 누구라 할것없이 조국보위에 애국적량심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사람들모두가 자기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이어놓고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고상한 도리로, 삶의 요구로 간직하고있으며 이것이 전사회적인 흐름으로,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총대라는 부름은 용감성과 배짱, 강의함과 함께 애국을 론하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청년들 누구나 총대라는 부름말속에서 수령을 받드는 가장 열렬한 충성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는 가장 고귀한 사랑

과 헌신에 대하여 되새겨보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노래를 하나 불러도 조국에 대한 노래를 즐겨 부르고 사랑을 해도 총대를 열렬히 사랑하는것을 청춘의 마땅한 본분으로 간주하고있다.

인민군대가 되여 조국을 지키는것을 제일 큰 애국으로 여기며 성장한 수많은 청년들이 꿈많은 청춘시절 갈 곳은 많아도 《나가자 군대로 조국을 위하여》라고 노래하며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가고있다. 청년들 누구나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는것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의무로, 청춘의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 너도나도 조국수호의 전초선에 서고있다.

청춘시절은 말그대로 꿈많고 열정넘친 시절이다.

꽃은 졌다가도 다시 피지만 한번 흘러간 청춘시절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의 한생에서 가장 귀중한 청춘시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청춘시절을 영예로운 초소에서 값있고 보람있게 장식하려는것은 공화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품고있는 리상이고 포부라고 할수 있다.

공화국의 모든 일터들이 피끓는 청춘들의 보람찬 활무대라고 할 때 그 일터들에서 조국을 위한 성실한 땀과 열정으로 청춘시절을 빛내이는것도 청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하다.

하지만 공화국의 청년들은 총대로 조국을 지키고 그 길에

서 청춘을 빛내이는것을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고있다.

청년들뿐만아니라 온 나라 인민모두가 조국수호의 열기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사람들 누구나 조국을 지키는것을 첫째가는 애국으로 간주하고 헌신하고있으며 언제나 마음을 조국보위에 얹고 살고있다.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총대가정, 온 가족이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켜가고있는 군인가정들이 나날이 늘어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이 이에 대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의 길에 내세운 손문규, 엄복순부부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군인가정으로 내세워주시며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이야기는 오늘도 사랑의 전설로 전해지고있다.

조국보위를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그들의 애국심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서 얼마나 많은 군인가정, 총대가정들이 태여났던가.

오늘날에는 총대가정, 군인가정이라는 말이 자랑스럽고 긍지스러운 부름으로 불리우고있는 속에 수많은 가정들에서 오만공수의 품을 들여 애지중지 키운 귀한 자식들을 조국보위의 전초선에 주저없이 내세우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아니라면 어찌 자식들의 오늘이 있겠는가고 하며 세쌍둥이, 네쌍둥이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부부들과 9남매를 모두 최전연초소로 떠나보낸 부부며 자기 집 벽면에 온 가족의 조선인민군 입대증을 나란히 걸어놓고 그것을 긍지로 여기고있는 부모들, 자식들만이 아니라 손자들까지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사람들…

이들만이 아닌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조국이 있어야 가정의 행복도, 우리의 미래도 있다고 하며 어려서부터 총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정신을 지니도록 자식들을 이끌어주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조국보위초소에로 떠밀어주고있으며 그 길에서 애국의 마음을 더욱 가다듬고있다. 총대가정, 군인가정의 대오가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만 가고있는것이다.

하다면 그 무엇이 인민들로 하여금 조국보위를 그토록 귀중시하고 모든것을 바치게 하는가 하는것이다.

공화국의 인민은 조국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자기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이어놓고 살고있다.

조국은 곧 수령의 품이며 조국이 없으면 자주적삶과 존엄도, 오늘의 행복과 미래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지나온 력사의 나날에 뼈에 새긴 공화국의 인민이다.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상가집 개만도 못하게 살아온 인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나라의 주인이 되여 보람찬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었고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여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였다.

공화국의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단순히 조상의 무덤이 있고 태를 묻고 나서자란 고향이 아니라 인민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터전이였다. 조국의 품은 곧 수령의 품이였던것이다.

영원한 존엄의 상징이고 삶과 행복의 요람인 조국을 보위하고 수령을 보위하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영예로운 애국은 없다!

망국노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낀 이 철의 진리가 신념으로 인민의 심장마다에 쪼아박듯 새겨졌고 그 의지를 안고 사생결단의 길, 조국수호의 길을 끗끗이 걸어왔던것이다.

그 길은 헐치 않았다.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달려드는 침략자들과의 싸움은 자주적인민이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사전이였다.

이 조국수호의 결사전에 온 나라 인민이 주저없이 떨쳐나섰다.

청년들은 물론 대학생들과 각지의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농민들도 지어는 학생들까지도 나이를 불

구면서 인민군대에 탄원하였다.

전선을 탄원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전쟁이 시작된지 며칠만에 74만여명이나 되였고 그후 탄원자수가 더 늘어나 84만여명에 이르렀다.

더우기 나라의 전 지역에서 전시동원령을 선포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나가자 전선을 탄원하는 청장년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참군열기로 끓어번지였다.

그 열기속에 수많은 청장년들이 《조국보위의 노래》를 부르며 전선으로 용약 달려나갔고 조국의 한치땅을 지켜 피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그들가운데는 녀성의 몸으로 수류탄묶음을 안고 적땅크에로 육박해 들어간 조순옥영웅도 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데 있겠는가고 하며 18살 나이에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리수복영웅과 두다리와 두팔에 심한 부상을 입고도 입에 수류탄고리를 물고 적들속으로 굴러내려간 강호영영웅도 있다.

이들만이 아닌 수많은 유명무명의 청장년들이 전선으로 달려나가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정든 고향, 행복의 보금자리가 있는 귀중한 조국을 지켜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였다.

조국이 없이는 청춘의 희망과 미래도 없다는 삶의 진리, **김일성**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의 신념을 심장속에 간직한 그들이였기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것 아니랴.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 한목숨 아낌없이 바치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조국보위열기는 전후에도,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도 변함이 없었다.

판문점사건과 《푸에블로》호사건을 비롯하여 적대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으로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달을 때마다 온 나라에 참군열풍이 거세차게 타번지고 전체 인민이 애국의 마음으로 조국수호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1993년만 보아도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면서 남조선에서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공화국을 2중으로 위협해나서는것과 관련하여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자 전국, 전민이 조국수호의지로 끓어번졌다.

침략자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수령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칠 충천한 각오를 안고 누구나 탄원해나섰다.

최고사령관명령 제0034호가 하달된 후 10일 남짓한 기간에 150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 사

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말만 하여서는 지킬수 없고 우국으로써는 담보할수 없는것이 조국의 안녕과 운명이다.

— 조국을 잃고 통탄하기 전에 수호의 총검을 더 날카롭게 벼리라. 조국을 지켜 목숨도 아끼지 말라.

조국을 지켜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선렬들의 이 절절한 당부가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좌우명으로 억척같이 새겨져있기에 인민들 누구나 남달리 총대를 사랑하며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새겨안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다.

조국을 보위하는것을 애국중에서도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그 길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간주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조국수호열기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렬해졌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비롯한 준엄한 시기들에 발휘된 우리 인민들의 조국수호의지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웠다.

한세기전 너무도 무맥하여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쳐들지 못하는 쇠약한 민족이라는 모독을 받고도 어데 가서 하소할데조차 없었던 우리 민족이였다.

그 피눈물나는 설음과 치욕의 가슴아픈 력사를 또다시 강

요하려고 미쳐날뛰는 온갖 적대세력들을 정의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려는 천만인민의 애국열의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것이였다.

어려운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한 가정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사회주의 큰집을 지키기 위해 전선행렬차에 몸을 실었고 선렬들의 조국수호정신으로 가슴 불태우며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나갔다.

이 나날에 조국보위이자 수령옹위이며 조국수호를 떠나서 참된 리상과 포부, 찬란한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 인민의 철석의 신념은 더욱더 굳건해졌다.

오늘도 공화국에서는 조국보위초소에서 총대로 조국을 지키는것을 응당한 의무로 간주한 수많은 청년들이 전세대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의 고귀한 전통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 너도나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켜가고있다.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누구나 군복을 입은 자식을 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긍지로, 행복으로 여기며 귀한 자식들을 주저없이 조국보위초소에 세우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조국수호전에 떨쳐나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이렇듯 조국보위를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누구나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헌신하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인것이다.

이것은 군복무가 강제성을 띠는가 하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거나 목숨을 건 도박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근로인민에게 청춘을 바쳐,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진정한 조국이 없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군복무는 애국이 아니라 자연히 강제성을 띠게 되며 대다수가 소박한 삶의 밑천이나마 마련하자고 군복을 입는다.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가는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군복무목적》이기에 높은 보수가 차례진다는 위험한 분쟁지역들을 찾아다니며 목숨을 건 필사의 도박에 매여달리는것이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진정한 자기의 조국을 보위하는것을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지키는 애국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몇해전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으로 정세가 교전직전으로 치달아올랐던 때를 보아도 나라의 정세가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에 이르자 전국각지의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조국결사수호의 신념과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조국보위성전에 용약 떨쳐나섰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후 하루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100여만명의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에 입대, 복대할것을 열렬히 탄원하였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공

화국인민들의 조국수호정신과 참군열의가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다.

더우기 2017년 공화국에 펼쳐졌던 탄원열기의 화폭들은 조국보위가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그대로 국풍으로 확립되여있는 공화국인민들의 조국수호의지, 애국의지가 어떠한가를 세계앞에 보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존엄높은 공화국을 《완전괴멸》시키겠다고 함부로 줴쳐대며 최후발악하는 원쑤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수령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청년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원쑤들에게 참혹한 죽음과 파멸을 안길 복수의 일념으로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섰으며 그 수는 날을 따라 늘어만 갔다.

공화국의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보위야말로 참된 삶의 터전,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중대하고 영예로운 애국으로 되는것이다.

조국보위를 애국중의 애국,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조국을 지키는 길에 애국헌신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것이 전체 인민의 생활로,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고있기에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침략공세앞에서도 끄떡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우리의 미더운 인민들은 사회주의조국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이며 조국수호에 애국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부강번영이 담보된다는 철리를 심장에 새기고 조국보위라는 애국의 길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바쳐가고있다.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랴

애국의 마음은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헌신에서도 표현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주저없이 달려나가 애국헌신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이 몇몇 사람들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기풍으로, 사회적풍조로 될 때 그 사회는 애국으로 흥하고 번영하는 사회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것이 전인민적, 전사회적기풍으로 되여있는 나라이다.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조국을 위한 삶,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생만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으로 간주하고 조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든 주저없이 달려나가 애국충정의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가는데서 긍지와 보람을 찾고있다.

청년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이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 사회

주의농촌과 최전연, 섬마을의 학교, 탄광, 광산과 개발지를 비롯하여 조국이 부르는 부강조국건설의 대고조전구들로 적극 달려나가 애국헌신의 하루하루를 값높이 새겨가고있는것이다.

조국의 부름에 한몸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영예로, 애국으로 간직한 이런 사람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는것과 더불어 애국이라는 고귀한 부름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애국으로 더욱 강해지고 흥해가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그 맨 앞장에 청년들이 서있다.

꿈을 꾸어도 조국이 펼치는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꿈을 꾸고 일을 하여도 조국에 하나라도 더 보탬을 주려는 하나의 지향으로 온넋을 불태우는것이 공화국의 청년들이다.

애국이 청춘이라는 부름과 결합될 때 그 위력은 더욱 배가된다.

어느 한 철학가도 《애국과 청춘이 하나로 된 조국은 영원히 로쇠를 모른다.》고 하였다.

청춘이라는 이름이 애국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애국과 청춘이 하나의 정신적피줄로 이어져있는 공화국이기에 조국이 부르는 대고조전구들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있었다.

공화국의 력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지를 남긴 북부철길건설.

북부산간지대에 새 철도를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대한 북부철길공사를 청년들에게 맡겨주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의 청년들이 너도나도 북방으로 달려나갔다.

북방의 추위는 엄혹했고 시련과 난관은 겹쌓였지만 청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떠나온 고향은 서로 다르고 나이도 직업도 각이한 그들이였지만 자기들에게 건설을 맡겨준 그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무비의 헌신성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부철길건설의 나날은 조국의 부름에 주저없이 달려나가 청춘의 기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긍지와 자랑으로 간주하고있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헌신의 모습을 과시하는 자랑찬 과정이였다.

북부철길건설만이 아니다.

조국이 가장 준엄하고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청년들이 닦은 100여리의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하여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에 조국의 부름에 주저없이 달려나가 영웅적투쟁을 벌린 청년들의 위훈이 어려있다.

어찌 청년들뿐이랴.

온 나라 인민이 조국이 부르는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로 주

저없이 달려나가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그것을 너무도 응당한것으로, 공민의 의무로 여겼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사전의 시각에는 적의 화구에 서슴없이 가슴을 내대는 병사가 애국자라면 오늘의 강국건설에서는 비약하는 조국의 받침돌이 되고 날개가 되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나서자란 수도를 떠나 협동농장으로 자원진출한 한 부부의 이 말속에 애국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들의 정신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다.

돌이켜보면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이 땅우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나가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우리 인민의 희생적인 투쟁의 자욱이 력력히 깃들어있다.

나서자란 정든 고향과 부모의 품을 떠나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진하여 수년세월 애국의 열정을 바쳐온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자리잡고있은것은 오직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심장을 바치겠다는 티없이 깨끗한 애국의 일념뿐이다.

공화국이 가장 준엄하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의 부름에 주저없이 달려나가 모진 고난과 난관을 이겨내며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광명성제염소를 건설한 함경남도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광명성제염소는 동해안에서의 소금생산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건설된 제염소이다.

우리 나라의 동해지구 인민들이 지역적특성으로 하여 서해안에서 생산한 소금을 날라다 먹으며 불편을 느끼고있는 사정을 헤아리시고 동해안에서의 소금생산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금야지구에 소금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함경남도인민들의 불같은 결의에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함경남도에 제염소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접한 도안의 인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너도나도 건설장으로 달려왔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인민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제염소건설에 모든것을 바치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산악같이 떨쳐일어났다.

한kg의 강재와 세멘트도 쪼개여 써야 하고 한줌의 식량이라도 아껴 먹어야 하는 그처럼 간고한 속에서도 무릎을 치는 감탕을 헤치며 수십정보면적의 갈뿌리를 모두 뽑아내고 수십만㎥의 흙을 져나르며 수많은 토량을 쳐내고 물길을 내며 제염소를 건설한 함경남도인민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도내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수수천년 쓸모없이 버림받던 금야만의 갈밭이 해마다 수많은 소금을 생산하는 대규모적인 소금생산기지로 전변될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사람들이 조국의 부름을 받들고 고향을 멀리 떠나 간석지와 건설장, 농촌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로 달려나가 애국헌신의 땀방울을 바쳤던가.

토지정리전투장에 달려나와 어깨에 멍이 들도록 흙을 져나르며 낮이나 밤이나 들에서 산 돌격대원들, 일년 열두달 불도젤에서 떠나지 않고 마지막포전까지 정리를 끝내고 쓰러진 운전수, 남편만이 아니라 안해까지도 운전수가 되여 토지정리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킨 부부불도젤운전수들…

이들모두가 그 어떤 사심이나 변심도 없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하나의 일념으로 조국이 부르는 대고조전투장들로 달려나온 애국자들이다.

언제인가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면모에 맞게 일신시키는 토지정리전투에 탄원한 4부자 불도젤운전수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처럼 4부자간이나 부부간에 불도젤을 운전하며 토지정리에 동원되여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것이라고, 집을 떠나 몇해동안 다른데 와서 일하는것이 간단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고향을 떠나 4년세월 변함없이 토지정리전투를 벌리고있는 이들에게 훌륭한 애국자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이 자신보다 조국을 먼저 알고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칠줄 아는 애국자들로 자랄수 있은것 아니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 인민들의 애국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고조되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한몸바쳐 받들어나갈 애국의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조국이 부르는 전구들로 달려나가 애국헌신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청진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당시까지는 이름뿐이였던 새로 건설되는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으로 용약 탄원한 대학졸업생들.

대학졸업을 몇달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성군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이들은 함경북도인민들의 식탁에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가 오르도록 하시려 례년에 없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그이를 그리며 잠을 이룰수 없었다.

함경북도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이 고마울수록, 그 사랑에 감복하여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을 새길수록 이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것은 자기들

이 그이의 구상을 받드는 길에 선참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 보답의 시각이 왔다. 가자, 온실농장과 양묘장으로!

이런 결심으로 심장을 끓이며 탄원을 결의해나선 그들이였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희망을 꽃피울 초소는 많았다.

하지만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제일먼저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 실현을 위해 서슴없이 한몸 내대는것을 참다운 애국으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는 청춘들이였기에 그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껏 쌓아온 지식과 청춘의 열정을 깡그리 다 바칠 결심으로 이 길에 나섰던것이다.

2018년 8월 대규모온실농장건설준비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해 또다시 현지를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자신께서 지난 7월 이곳에 대규모온실농장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준 이후 청진농업대학 졸업반학생들이 온실농장에 선참으로 탄원하였다는데 그들이 정말 기특하다는 값높은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언제나 조국애로 가슴을 불태우며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주저없이 달려가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이들과 같은 애국자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온 나라 인민들속에서 고조되고있는 애국의 기풍은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조국의 고마움과 귀중함에 대한 자각과 보답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 어머니품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지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인민을 위한 어머니조국의 보살핌은 참으로 눈물겹도록 고마운것이였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새 조국건설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고귀한 피와 땀 지어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였던것이다.

오늘날에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것을 도덕으로, 의리로 간직하고 누구나 주저없이 보답의 한길에 들어서고 있다.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한몸 기꺼이 바쳐 보답하는것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간직하고 조국을 받드는 길에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으며 이 길에서 애국의 마음을 더욱 가다듬는것이 이 나라 인민들의 생활신조이고 기풍인것이다.

이들이 걷는 길은 꽃피는 들길이나 탄탄대로가 아니다.

자신보다 조국을 앞에 놓는 티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애국의 마음으로 온몸을 불태우는 애국자들이기에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며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가고있는것이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는 중학교를 졸업해서부터 오늘까지 10여년세월을 바람세찬 간석지건설장에서 대형화물자동차를 몰고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보람찬 운행길을 달리고있는 처녀운전사가 있다.

대대로 간석지건설자로 일해오는 가정에서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 섭섭해하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 대를 잇겠다고 하며 대형화물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은 처녀.

무엇때문에 남자들도 저어하는 대형차운전사직업을 자진하여 택하려고 하는가, 앞으로 시집도 가야 할텐데 덩지큰 대형자동차를 끄는 처녀라고 하면 어느 총각이 좋아하겠는가고 하면서 반대하는 어머니에게 처녀는 말했다.

우리 처녀들이 저 하나의 리익과 안락을 위해 가파로운 벼랑길을 피해간다면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는 과연 누가 서겠는가, 대대로 간석지건설자로 살아온 우리 가정의 공백은 누가 메우는가고.

이렇게 처녀는 17살 단발머리를 날리며 첫 운행을 시작한 그날부터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운전대와 더불어 스스로 선택한 청춘의 길, 애국의 운행길을 변함없이 달리고있다.

어찌 이 처녀운전사뿐이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후대교육에 청춘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일념으로 나서자란 수도 평양을 멀리 떠나 황해남도 옹진군 대기리의 섬마을분교와 함경남도 신포시의 섬분교로 자원하여 달려나간 김형직사범대학 졸업생들.

인생에 두번다시 없을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에서 꽃피우려는 결심을 품고 최전연지대와 섬마을학교로 자원진출한 원산사범대학과 리수덕원산교원대학의 십여명의 대학졸업생들.

석탄증산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서창청년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에 자원진출한 평안남도안의 100여명의 청년들.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고 만복의 새세상을 펼쳐주시려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간직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삼지연시꾸리기전투장을 비롯한 강국건설의 대고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간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들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의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애국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새겨안고 부강조국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큰 몫을 맡아 걸싸게 해제끼며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가고있는 애국자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온 나라가 애국의 열기로 끓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된 발전소언제와 석탄증산으로 끓어번지는 수천척 막장, 황금나락 설레이는 사회주의협동벌과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전투장에서도 애국으로 심장을 끓이는 이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열기를 느낄수 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 달려나가 고귀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며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는데서 인생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것이 사람들의 인생관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에서 세상사람들은 사회주의조선의 래일을 확신하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렇듯 사람들 누구나가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서슴없이 달려나가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데서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찾고 조국을 위한 애국의 길에 자기의 후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것을 긍지와 자랑으로, 애국으로 여기고있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온 나라 인민이 애국을 인생관화하고있기에 공화국이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그리도 줄기차게 전진하고 미래는 그처럼 밝고 창창한것이다.

개인보다 집단을, 가사보다 국사를

애국심은 그 어떤 특출한 위훈을 세우는데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자기 일터를 묵묵히 지키면서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도 애국자이다.

온 나라 인민모두가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조국의 부강발전에 헌신분투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삼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척 지하막장과 인적드문 산중초소, 두메산골과 외진 등대섬을 비롯하여 남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는 헌신을 바쳐가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여있다.

힘들고 험한 일을 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선뜻 발을 내디디지 못하는것이 인간의 심리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따로 없는것이 보편적인 인생관으로 되고있다.

사람들 누구나 누려야 할 공민의 권리보다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앞자리에 놓고 자기의 취미와 소질, 재능과 능력도 조국이라는 부름과 직결시키며 조국을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바칠 자리, 조국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찾는데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는다.

자기 개인이나 가사보다도 집단과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부문과 직종들에서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는것이 누구나의 삶의 요구로 간주되는 전사회적인 기풍.

이것은 직업이 보수나 명예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위한 사회적분공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고상하고 고유한 풍모라고 할수 있다.

직업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 사랑의 감정에 대해 생각할수 없으며 어렵고 힘든 일터에서 그 무엇도 바람이 없이 한생을 묵묵히 산다는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수 없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어려운 일감을 찾아 성실히 일해가고있으며 여기에서 인생의 참된 긍지와 보람을 찾고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어렵다고 일손을 놓거나 주저앉지 않으며 조국의 번영을 위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한생을 변함없이 헌신분투하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애국으로 여기고있는것이다.

온 나라 인민이 자기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가사보다 국사를 첫자리에 놓으며 자기의 일터, 자기가 하는 일을 보람있게 여기며 애국의 한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일해가고있는 공화국의 사회적풍조는 결코 오늘날에 와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해방후부터 형성되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승화되여 확고히 자리잡은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임무로 된다고 하시며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그 어떤 명예나 공명, 평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하여온 사람들에게 숨은 영웅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며 그들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송림땅의 철의 기지에 들려보면 장알박힌 로동자들의 험한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동무들은 용광로주인이자 곧 나라의 주인이며 나라를 떠받들고 나아가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용해공의 긍지와 영예를 더욱 뜨겁게 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온다.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면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천하게만 여겨오던 한 리발사에게 동무는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며 크나큰 영예를 안겨주시던 그이의 모습도 숭엄히 어려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동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무슨 직종에서 일을 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자신의 로동이 조국과 민족의 부강발전과 륭성번영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군 하시였다.

인민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영예감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로동에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

공훈리발사칭호를 수여받은 한 평범한 리발사를 만나시여 축하해주시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을 가리면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람값으로 치지 않고있다고,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당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그가 구두수리를 하건, 리발을 하건, 탄을 캐건 무슨 일을 하든지 차별하지 않고 최상의 영예와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하시며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그처럼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들을

꿋꿋이 지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기적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온 긍지높은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인민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이 있어 개인보다 집단을,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것이 사회의 풍조로 자리잡을수 있었다.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중구역상하수도관리소에는 30여년세월을 변함없이 하수준첩공으로 성실히 일해오고있는 한 녀성이 있다.

20대 꽃나이시절부터 늘 작업복차림을 하고 사람들의 눈길이 별로 미치지 않는 하수준첩공일을 하고있는 그를 두고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의 고결한 인생관에 머리를 숙이군 한다.

언제인가 이제는 나이도 적지 않은데 편안한 일자리로 옮기는것이 어떤가고 권고하는 구역의 한 일군에게 그는 《이 나라의 공민이라면 응당 나라에서 무엇을 바라고 나라에 보탬을 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늘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수준첩공직업을 선택한것이고 30여년세월 그 일을 후회없이 해오고있는것입니다.》라고 진정을 터놓았다.

비록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위훈은 없고 하는 일은

그리 크지 않아도 그가 새겨가는 애국의 자욱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근로하는 인민의 삶을 귀중히 여기고 값높이 내세워주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그는 공훈도시관리공,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가고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한 삶의 평가기준은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그가 사회와 집단에 필요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가 하는데 있다.

아무리 남보다 직위가 높고 화려한 직업에서 일한다고 하여도, 재산이 많고 오래 살았다고 하여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기여한것이 없고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인다면 그것은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라 말할수 없다.

온 가족이 신발수리공이 되여 수십년세월을 신발수리에 묵묵히 바쳐온 중성신발수리소의 신발수리공가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변함없이 수십년을 우편통신원으로 일해오는 전천군체신소의 우편통신원부부, 바람소리와 새소리뿐인 적막한 산정에서 온 가족이 대를 이어가며 TV중계소를 지켜온 명간군의 TV중계공가족, 부모의 뒤를 이어 오수준첩공이 되여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낮과 밤을 가림없이 사람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해 남모르는 헌신을 바쳐간 원산시물정화사업소의 평범한 로동자, 단발머리날리는 처녀시절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섬마을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철산소학교 가도분교의 교원…

이들만이 아닌 공화국의 수많은 애국자들,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한생을 성실하게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보여주는것처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가, 맡은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투신하는가 하는데 따라 애국의 진가가 판별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칠 때만이 애국적인 삶이라 자부할수 있는 긍지롭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되는것이다.

이 땅우에 자기 일터를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의 기풍이 력력히 흐르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더욱 빛나게 받들어가시는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할 때 조국도 부강해지고 자기 가정의 행복도 미래도 담보된다는것을 잘 알고 자기가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해나감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계신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시여서도 자기 일터를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제일로 기뻐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것이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여서는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이들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지닌 혁명가적인생관, 후대관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손길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는가.

온 나라 인민들이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사회의 기풍으로 더욱 공고화되고있는 속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외진 곳에서 마른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해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애국자로 적극 내세워지고있으며 그들의 숨은 공로가 값높이 평가되고있는것이다.

30여년을 하루와 같이 주민들의 먹는물보장을 위하여 량심껏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는 모란봉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 리승철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

참된 애국은 혀끝에 있는것이 아니라 심장속에 있다.

애국의 말은 하기 쉬워도 애국의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법

이다.

수십여년을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 직종에서 사심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는 그의 인생은 참다운 애국은 실천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칼바람이 사정없이 살을 에이는 강추위속에서 꽝꽝 얼어붙은 땅을 한치한치 뜯어내고 얼어붙은 관을 녹여야 했고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도 고장난 상수관수리를 위해 밤을 밝혀야 했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던 고난의 나날에도 허기진 몸으로 땅을 파고 물이 뿜어져나오는 상수관을 수리하며 주민들의 먹는물보장을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그였다.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서 생의 보람을 찾은 그였기에 어려움과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직업과 초소를 저울질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수십년세월을 한모습으로 자기 초소를 변함없이 지켜가고있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있는 그의 삶을 사회주의조국은 값높이 내세워주었다.

오가는 눈비바람 다 맞으며 작업복을 벗을새없이 궂은일, 마른일 앞장서 하느라 남달리 험하고 굵어진 손, 그 손에 사랑의 금반지를 끼워주었고 그자신도 범상하고 작은것으로만 여겨온 그의 삶을 더없이 크게 내세워주며 사회주의애국공로

자라는 인생의 값높은 영광을 안겨주었다.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할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복무자로, 애국자로 존엄높고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인민을 위해서, 고마운 조국을 위해서 한생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소의 한 평범한 로동자의 이 말속에 순결한 량심으로 애국충정의 인생길을 꿋꿋이 가고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 그대로 어려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건전하고 활발해야 하는것처럼 조국이라는 거목이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부강번영하자면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아야 한다.

든든한 뿌리가 없는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할수 없듯이 조국도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없으면 강성번영할수 없다.

그 어떤 광풍에도 넘어지지 않게 나무를 받쳐주는 뿌리와 같이 한몸바쳐 조국을 떠받드는 사람,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쉬임없이 줄기에 영양소를 주는 뿌리처럼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는 애국자들이 많을수록 조국이라는 거목이 더욱더 굳건할수 있는것이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라를 위한 일을 찾아서 하고 앞

으나서나,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나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이어가는것을 량심과 의리로 간직한 사람들이 공화국의 인민이다.

오늘날 조선이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굴함없이 사회주의의 한길로 전진해나갈수 있는것은 사람들 누구나 애국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에 스스로 나서고 자기 일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애착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기때문이다.

사람들스스로가 나는 공화국의 공민답게 떳떳이 살고있는가라는 물음에 자기 량심을 비추어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행복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이것이 사회의 풍조로 더욱 공고해지고있기때문이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겹쌓여있지만 추호의 동요나 비관을 모르고 애오라지 조국의 발전에 보탬을 줄 애국의 의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비록 누가 보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외진 곳, 험한 곳이라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기여하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몸을 담그며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한생을 성실하게 일해가는것이 사람들 누구나의 지향으로, 고결한 인생관, 생활관으로 되고있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애국의 한마음으로 헌신하고있는것이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공고화되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사심없는 헌신이 애국으로 불리워지는 나라, 직업의 귀천이 없을뿐아니라 집단을 위해 애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랑과 존경을 받고 떠받들리우는 이 고마운 사회를 위해서라면 한생을 기꺼이 바치겠다는것이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전체 인민이 가슴속에 뜨거운 애국심을 지니고 개인보다 집단을, 가사보다 국사를 더 중시하는것이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순결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참된 인간, 진정한 애국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인민과 군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땅우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날과 달이 흐르고있다.

백두산아래 첫동네인 삼지연시와 동해의 명승 명사십리, 단천발전소와 어랑천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건설신화들이 창조되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국도처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이 키를 솟구치고있으며 드세게 몰아치는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사람들의 일본새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이 의연 지속되고있는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시련을 승리적으로 헤쳐나가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두고 세계가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이 불가항력의 전진을 떠미는 추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과 군대가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군민대단결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인민과 군대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정면돌파하며 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전변의 자랑찬 성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군민대단결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며 그 어느 나라나 민족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조선의 국풍이다.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에 찬 력사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여온 력사, 군민대단결을 추동력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온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천고의 백두밀림에서 반일항전의 총성이 울리던 그때로부터 공화국이 창건되여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의 전기간 절세위인들의 령도아래 군민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수호하며 전진시켜온 우리 인민과 군대이다.

강대한 일제를 상대로 아무런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인민들과 유격대가 하나로 굳게 뭉쳐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온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필연적결과이다.

항일유격대 2개 중대와 중무장한 일제의 5 000여명의 《정예병력》과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소왕청유격근거지방위전과 포와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달려드는 수천명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처창즈유격근거지방어전투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유격구를 사수할수 있은것은 방위전에 유격구의 인민과

유격대가 떨쳐나 결사항전을 벌렸기때문이다.

포수들과 녀인들, 나어린 소년들까지 떨쳐나 유격대와 힘을 합쳐 유격구사수를 위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였기에 일제를 전률시킨 소왕청과 처창즈의 결사항전의 정신이 창조될수 있었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인민과 군대의 단결과 협력은 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더욱 발전하여 그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자랑찬 전통을 이어왔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가렬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이였다.

이 대결전의 전 행정에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싸움으로써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진행된 원산방어전투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당시 적들이 인민군부대들의 익측과 후방을 타격하고 공화국북반부의 전 지역을 단숨에 강점하려는 기도로부터 원산에 상륙하려고 하자 인민군군인들과 지방의 경비무력들, 인민자위대를 비롯한 민간무력과 원산시민들은 도시방어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인민들은 해안포병들과 함께 중요고지마다에 방어진지를 굴

설하고 무기와 탄약을 운반하였으며 어로공들은 기관선, 전마선을 타고 해병들의 기뢰부설을 도와나섰다.

적들이 상륙을 시작하였을 때에도 인민군대는 인민들과 함께 륙지에로의 상륙을 시도하는 원쑤들에게 섬멸적불벼락을 안기였으며 원산시가방어전에 나선 군인들은 인민들과 함께 거리와 골목을 피로써 지켜내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녀성들도 담가대를 조직하여 부상병들을 날랐으며 인민들은 시내의 자동차와 달구지를 동원하여 포탄과 탄약을 운반하였다.

원산시의 모든 인민들이 전호속에 뛰여들어 인민군용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적들을 족쳐댔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이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하고 인민유격대들과의 협동작전을 벌려 침략자들을 소탕할수 있은것도 인민과 군대의 단결된 힘,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였다.

전쟁시기 우리 나라에 왔던 어느 한 외국인은 조선에서는 누가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고 누가 사민인지 도저히 분간할수 없다고 하면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은 결코 인민과 군대가 한덩어리로 뭉쳐 싸우는 조선을 굴복시킬수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지구상의 《최강국》과 맞서싸워 그를 타승

할수 있은것은 적측이 거의 순수한 군사력만 동원한 반면에 우리측에서는 전민이 동원되고 군민이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이라고 회고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창조된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는 우리 인민과 군대가 서로 굳게 단결되여 뜻과 마음을 합치고 협동작전을 강화하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인민적인 투쟁을 벌려 이룩한 빛나는 결실인것이다.

전후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푸에블로》호사건과 판문점사건 등 특대형사건들을 조작하고 해마다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을 벌려놓으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킬 때에도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는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적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사수하였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끊임없이 벌어진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인민과 군대의 단결된 힘으로 짧은 기간에 도시와 마을, 공장과 기업소들을 복구하고 영웅조선의 본때를 다시한번 보여준 전후복구건설, 군민이 힘을 합쳐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설비로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한 검덕광업종합기업소(당시) 제3선광장건설…

더우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엄혹한 시기에 사회주의

조선이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일떠설수 있은것도 인민군대의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에 의거한 인민과 군대의 단결과 협력이 있었기때문이다.

군민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인민이 그것을 적극 따라배워 혁명대오를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에서 완전한 하나의 모습을 이룬 전투대오로 만드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생활환경과 생활조건이 서로 다른 사회적집단들사이의 관계에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기초는 사상정신과 생활태도와 투쟁방식에서의 일치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서는 사람들, 사회적집단들사이의 공고한 단결을 실현할수 없으며 행동의 유일성을 보장할수 없다.

인민군대가 발휘하는 투쟁정신과 기풍에 기초한 인민과 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는것이야말로 군민의 통일단결실현의 본질적요구로 나서는것이다.

나라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시기 인민과 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군민일치사상을 명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혁명의 승리도, 부강조국의 미래도 군민의 단결된 위력에 있다는 철석의 신조를 지니시고 군민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로 공화국에서는 군대의 선도자적인 역할에 의한 인민과 군대의 정

치사상적 및 정신도덕적풍모와 행동의 일치가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되였다.

인민과 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실현은 우리 사회의 굳건한 밑뿌리로 되였다.

난관과 시련이 중중첩첩 겹쌓였지만 우리 인민과 군인들사이의 혈연적관계에서는 그 어떤 자그마한 틈과 불신도 없었다. 무적필승의 강군이 혁명의 기둥으로 억세게 서있는것과 함께 전체 인민이 군대와 어깨겯고 결사수호의 성벽을 쌓으며 굳건한 단결을 이루었으며 이 강력한 힘으로 준엄한 난국을 용감무쌍히 헤쳐나갔다.

우리 인민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은것도, 성강과 라남의 봉화높이 대고조진군을 다그칠수 있은것도 군민일치가 튼튼히 다져지고 더욱 굳건하였기에 이룩된 결실이다.

남들 같으면 일어서지도 못하였을 최악의 어려움속에서 공화국이 난관을 박차고 일어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것은 군민대단결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인것이다.

군민대단결이야말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 추동력이다.

승리만을 아로새긴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온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이르러 더 높이 발

휘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련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고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라고, 인민군대가 맨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나감으로써 주체조선의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인민군대가 군민대단결을 주도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령도로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군대가 조국을 수호하고 행복을 창조할뿐만아니라 사회주의문명까지도 앞장에서 개척해나가는 군민대단결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인민군대가 인민의 운명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 사회주의문명의 개척자가 되여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온 사회가 인민군대의 투쟁기풍, 창조본때를 따라배우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여나가고있는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뜻깊은 2012년에 인민군대가 맡아 수행한 공사들은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그때 인민군군인들은 방대한 공사인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개건보수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을뿐아니라 보다는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군민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되였다.

군인들이 련이어 맡아 수행한 합장강정리공사와 보통강정리공사, 평양시안의 공원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공사들도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들에게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본성과 얼굴을 똑똑히 보여주고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인민군군인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드세차게, 맹렬하게 벌려 당이 준 과업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건설신화들이 창조되고 온 나라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눈부신 화폭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로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우리 인민들에게 선진문명의 창조물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고 인민군군인들은 휴양지를 지대적특성과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하며 온천문화에서도 세계적인 문명을 압도하기 위해 정력을 총발동하였다.

현대미와 고전미를 잘 살린 려관, 치료호동, 료양호동, 야외온천장들과 아아한 산정에서 뻗어내린 스키주로, 승마공원을 비롯하여 온천문화휴양지의 하나하나의 봉사시설들마다에는 인민군군인들의 드높은 정신세계가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9년 12월 완공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온천문화, 온천문명을 안겨주게 된것도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이런 문명을 바로 인민군군인들의 손으로 건설한것이 더욱 기쁘다고, 일진광풍의 기상으로 수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만점짜리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자기 령도자를 받드는데서도 앞장설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문명을 개척하는데서도 제일인 인민군대의 정신과 풍모, 일본새는 온 나라 인민들을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으며 온 사회에 필승의 신심과 용

기, 미래에 대한 락관을 북돋아주며 군민대단결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우는 과정에 인민들의 관점과 일본새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앞을 내다보는 안목과 문명창조의 높이가 달라지고있다.

인민군대가 불가능을 모르는 단숨에의 기상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모든 면에서 시대의 본보기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길에서 군대와 뜻과 마음, 발걸음을 하나로 합쳐나가고있다. 군민대단결이 나날이 굳건해지는것과 더불어 그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격전장들 그 어디에서나 군민협동작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과 영웅신화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 조국의 문명의 높이, 창조의 높이를 보여주는 눈부신 초고층살림집들이 건축군을 이룬 려명거리가 일떠선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건설신화이며 군민대단결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이다.

이뿐이 아니다.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하여 조국의 모습을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시키며 솟구쳐오른 기념비적창조물

들과 라선시와 북변천리 두만강연안에서 울려퍼진 사회주의 만세, 로동당 만세의 환호성…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일어나고있는 이 경이적인 변혁들은 어느것이나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힘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공화국에서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그 후과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도, 대자연개조사업과 도시와 농촌건설을 비롯하여 각 도, 시, 군을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발휘되고있다.

태풍13호가 들이닥쳤던 지난해만 보아도 그렇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태풍13호의 영향으로 서부지역을 위주로 전반적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폭우를 동반한 비와 소낙비가 내리였다. 하지만 태풍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이 총궐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받들어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과 군대가 태풍피해방지를 위한 강력한 협동작전을 벌린 결과 태풍에 의한 피해를 극력 줄일수 있었고 전국적범위에서 짧은 기간에 피해후과를 가시고 정상적인 생산과 건설활동을 진행할수 있었다.

군민이 합심하여 자연의 대재앙을 막은 공화국의 이러한 현실에 온 세계가 부러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인민군군인들과 주둔지역의 인민들

이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시설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일떠세우고있으며 산림조성과 잔디심기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을 비롯한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모든 전구들에서 군민대단결에 기초한 군민협동작전이 드세차게 벌어지는 속에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오늘날 공화국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창조대전에서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떨쳐가는 우리 인민과 군대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락관과 희열에 넘친 웃음소리가 차넘치고 승리의 개가가 높이 울리고있다.

물리적인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공화국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령도자의 두리에 인민과 군대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이 위대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억척으로 다져주신 군민대단결이 있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이것이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심장의 웨침이며 이 신념과 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억세여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인민과 군대의 대단결, 그이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이 있어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더욱 뜨거워지는 원군원민의 기풍

군민대단결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나라의 국풍으로 되고있는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보고 느낄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기풍이 있다.

인민과 군대가 서로 위해주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는 원군원민기풍이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은 군대를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군대는 인민을 돕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원군원민이 인민과 군대의 지향으로,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

인민과 군대가 보호받고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위해주며 사랑과 정을 나누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굳건한 혈연의 관계를 맺고있는것이다.

전사회에 원군원민의 기풍이 차넘치는 속에 인민들과 군인들사이에 혈육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인민과 군대가 우리 공장—우리 초소, 우리 농장—우리 초소, 우리 학교—우리 초소, 우리 마을—우리 초소관계를 맺고 혈연의 정을 두터이 하는것과 더불어 원군원민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사이의 관계에서 정과 의리로 결합되고 맺어진것만큼 공고하고 순결한것은 없다고 했다.

우리 공화국의 군민대단결이 그렇듯 굳건한것도 인민과 군대가 투쟁기풍과 정신에서만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과 정, 의리로도 굳게 단결되여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혁명무력은 반일인민유격대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해방후에는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여오는 전 과정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은 변함없이 간직하여왔다.

여기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성스러운 군기에 새겨안고 자기의 첫걸음부터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온 우리 혁명무력의 발전행로가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간고했던 항일전의 그 나날 행군길에서 잠간 마을에 들릴때에도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물도 길어주고 불도 때주며 마당도 쓸어주고 나무도 패주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서 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유격대원들이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가 포대와 토성, 철조망으로 원군의 강줄기를 끊어보려고 발악하였지만 백두산으로 흐르는 인민들의 마음까지 가두어둘수 없었던것은 유격대가 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된 군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명실공히 인민의 군대였기때문이다.

항일유격대의 애민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이기에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이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도 인민의 참된 아들딸로서 인민과 뜨거운 정을 나누며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했던것이다.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대하고 인민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보위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군대, 원민을 확고한 군풍으로 하는 군대만이 인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을수 있으며 인민의 지지를 받는 군대만이 군민대단결을 주도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지나온 군민대단결의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뿌리도 품어주는 어머니대지가 있어 생명력을 가진다.

항일전의 나날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이름없는 농가에서 손수 나무도 패시고 항일유격대가 참다운 인민의 군대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인민군대가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들고나가도록 하시고 력사의 흐름속에서도 자기의 인민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을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은 원민이 인민군대의 기풍, 군풍으로 뿌리내리고 억세게 줄기뻗치도록 품어주고 가꿔준 대지였다.

원민을 군풍으로 하는 인민의 군대, 위대한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인민군대를 위하여 우리 인민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인민에게 있어서 원군은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한 부분으로, 가풍으로 되였다.

이 땅에 흘러온 원군의 력사는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우리 인민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 추억깊은 장백의 물방아소리.

유격대와 근거지의 인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강도 일제에게 무리죽음을 준 소왕청유격근거지방위전투.

유격대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정,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있어 조선인민혁명군은 강도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항일전의 나날에 꽃펴난 원군미풍, 장백의 물방아소리는 지

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직동령의 승리방아로 이어졌다.

전선에 더 많은 원호미를 보내주기 위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정성들여 쌀을 찧은 직동령의 녀인들과 총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포연탄우를 뚫고 포탄과 탄약을 져나른 남강마을녀성들, 싸우는 고지와 후방을 련결하는 수송로를 지켜 피어린 싸움을 벌린 전선지구 인민들…

이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군기기금헌납운동, 애국미헌납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운동을 힘있게 벌렸으며 나어린 학생들까지도 수많은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전선에 보내여 인민군군인들의 전투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을 거쳐 공고하게 다져진 원군기풍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변함이 없었다.

세 자식을 서해갑문건설장에 보낸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갑문건설장으로 달려와 몇년을 하루와 같이 군인건설자들의 뒤바라지를 해주고 식당일을 도와준 로인부부와 수십마리의 돼지를 길러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준 평원땅의 평범한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들이 인민의 군대를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으며 공화국의 인민에게 있어서 원군은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였다.

더우기 고난의 나날 비록 자기 집 쌀독은 비여있어도 정성다해 가꾼 곡식을 알알이 골라 인민군군인들에게 아낌없이

보내준 전야의 농민들과 자기들은 제대로 쓰지도 먹지도 못하면서도 정성껏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초소를 찾아 떠나던 인민들, 조국이 있고서야 가정도 있고 자식들의 밝은 앞날도 있다는 신념으로 고난의 눈보라속에서도 원군의 길을 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피와 살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우리 인민의 원군기풍은 그야말로 눈물겹도록 감동적이였다.

언제인가 해주땅에 펼쳐졌던 화폭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황해남도인민병원에서 군사임무수행중 사경에 처한 군인에 대한 두번째 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되였는데 어디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었는지 대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군인을 위해 자기의 피부를 바치겠다고 서로마다 몸을 내대는 사람들과 그들을 만류하는 의사들.

그때 수술장앞을 막아선 의사들에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았다.

— 인민군대가 아니였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을것이다. 군대가 있어 우리가 발편잠을 잘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인민의 군대를 위해 피부를 바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

이렇듯 원군원민기풍은 공화국이 군민대단결을 굳건히 하고 그 위력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도전과 고난을 박차고

자기의 사상과 제도, 인민을 견결히 수호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훌륭한 기풍도 계승되여야 자기의 생명력을 발휘할수 있고 보다 더 공고해질수 있다.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스러운 년륜을 새겨온 군민대단결의 전통이 꿋꿋이 이어지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원군원민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있다. 온 나라 인민과 군대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뜻으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정, 의리로 이어져 군민대단결을 보다 더 굳건히 해나가고있다.

인민을 떠난 군대,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떠난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이란 있을수 없다는 철석같은 신조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부강조국건설의 돌격대가 되여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군민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언제나 주동이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울리던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 인민이라는 글발을 새겨넣도록 하시고 우리 군인들을 조국번영의 선구자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더욱 억세게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군군인들을 불러일으키실 때마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한 일을 하여도 인

민들에게 절대로 손을 내밀거나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계신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은 인민군장병들이기에 자기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 뜰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지금도 자연재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때를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의 행복을 위한 날과 달을 이어간 인민군군인들의 장한 모습이 떠올라 사람들은 절로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금할수 없어한다.

군인건설자들이 한삽의 흙을 뜨고 한장의 블로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령도자의 이 당부를 명심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사생결단의 치렬한 건설대격전을 벌려 6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두만강연안의 북변천리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을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이다.

피해복구를 위한 철야전투를 벌리는 힘겨운 속에서도 하루에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씩 찾아하자고 하며 원민을 멈추지 않은 인민군군인들의 소행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

겁게 해주었다.

인민들이 다리가 파괴되여 개울로 다니기 힘들어한다는것을 알고 밤사이에 든든한 돌다리를 만들어준 이야기며 자기들의 식량을 덜어 산모에게 안겨준 소행,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늙은이에게 광명을 되찾아준 사실을 비롯하여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아름다운 미풍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군인들의 아름다운 미거를 대할 때마다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터져오른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이라는 격정의 분출이였다.

예로부터 군대는 인민이 먹여살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오히려 군대가 인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세라 마음을 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으니 이런 인민의 군대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비록 부족한것이 많고 생활은 어려워도 친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친혈육을 대하는 심정으로 인민의 군대를 위해 진정을 기울였고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치였다.

수도 평양에 정든 집을 남겨두고 최전연초소로 달려가 10여년세월 많은 고기와 염소젖을 생산하여 군인들의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며 원군길을 이어가고있는 김희련녀성, 60여년을 하루와 같이 원군길을 이어가며 수많은 집짐승을 길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준 평양시 사동구역의 김춘옥할머니…

이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이 인민군군인들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고 인민군대를 우리의 군대, 인민의 군대라고 부르며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고 어려움속에서도 군대를 먼저 생각하며 진정을 바쳐가고있다.

군대는 인민 위해 생명도 바치여가고
인민은 군대 위해 만가지 정성 다하네
오가는 맘 끝없어 아리아리랑
혈육의 정 뜨거워 아리아리랑
군민일치 꽃피우니 한마음한뜻일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군민아리랑

내 조국땅 어디서나 《군민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인민은 군대를, 군대는 인민을 위하는 원군원민의 기풍은 나날이 고조되고있다.

인민과 군대들사이에 오가는 혈육의 정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하는것은 라선시큰물피해복구전투장에서 있은 일들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그때의 복구전투는 군대를 위하여 하나라도 무엇인가 더 도와주려는 인민들과 그것을 절대로 받을수 없다고 만류하는 병사들과의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전투》였다.

명절날에 정성스럽게 떡을 빚어 군인들을 찾아갔건만 병사들이 한사코 받아주지 않아 작업현장과 마을을 몇번이고 오갔다는 이야기며 속에 없는 꾸지람을 하면서까지 억지로 원호물자들을 들려주고 돌아섰지만 다음날에는 더 많은 량으로 갚아주고 부득이 주인을 찾을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위원회에 넘겨주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소행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어느날 외손자, 친손자모두 군대에 보낸 할머니가 다래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고향의 할머니가 주는것으로 알고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하지만 군인들은 할머니의 성의를 거듭 사양하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래바구니를 안고 주저앉으며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데 있겠는가고 하며 눈물속에 격정을 터쳤다.

이를 통해서도 인민과 군대가 서로 끝없이 위해주며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의 숭고한 세계를 절감할수 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인민과 군대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

그러나 그 언제, 그 어디서 인민과 군대와의 관계가 이렇듯 친형제, 친혈육의 정으로 결합되고 원군원민의 기풍과 더불어 더욱 공고해진적이 있었던가.

인민군대가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되고 원군원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대를 이어 계승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가 있어 공화국에서는 인민과 군대사이의 혈연의 정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것이다.

참으로 원민이 군대의 군풍으로, 원군이 온 나라 가정들의 가풍으로, 온 사회의 미풍으로 발양되며 그 열기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는 나라는 오직 공화국밖에 없다.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 기풍속에

국력의 강약에 의해 국가와 민족의 존엄과 지위, 전도가 결정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의 국력을 담보하는 주되는 재보는 인재와 과학기술이다.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인재와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고 풍요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릴수 없으며 나아가서 민족의 존엄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수 없다.

국가들사이의 국력경쟁에서 기본의 기본이 과학기술경쟁으로 되고있고 세계무대에서 인재쟁탈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현시대의 흐름은 인재와 과학기술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은 물론 존망까지도 좌우하는 주요한 전략적자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재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것이 국책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것을 인재와 과학기술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해결해나가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국가의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지도와 관심속에 인재를 중히 여기고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는 사업이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활발히 전개되고있으며 인재와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사회의 전반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 놀라운

비약적발전이 이룩되고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속에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가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국풍으로 확립되여가고있다.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인재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국의 꿈과 리상을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커다란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자랑스러운 력사를 새겨온 과학기술중시기풍

인재와 과학기술은 인민의 천만가지 꿈과 리상을 희한한 현실로 꽃피울수 있는 위력한 원동력이며 국가와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의 모든 부문의 발전을 좌우하며 추동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실현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인재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천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러한 현실적요구에 맞게 최근년간 우리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인재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것을 전략으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밀고나가고있다.

모든것을 인재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해결해나가는것이 전 사회적인 풍조로, 확고한 국풍으로 확립되고있는것이다.

인재중시와 과학기술중시는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주되는 관심을 돌려온 전략이다.

일찌기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재와 과학기술을 중시할데 대한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여기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간고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어 해방후에도 지식인들을 로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투쟁의 기본동력으로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도록 하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더없이 귀중한 나라의 보배로 여기시며 사랑의 한품에 안아 과학탐구의 길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텅 빈 금고와 장부밖에 없던 해방후 농민들이 애국의 마음담아 올린 애국미로 인민의 종합대학을 일떠세우시고 근로대중의 아들딸들을 공부시켜 혁명의 인재로 키워주시였으며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는 싸우는 고지의 병사들을 대학으로 소환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인재와 과학기술을 그토록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인 1952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오늘의 국가과학원)이 창립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튼튼한 터전이 마련될수 있었다.

당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독립후에도 10년 또는 수십년이 지나서야 과학원을 창립하였는데 해방된지 몇해밖에 안되고 힘겨운 전쟁을 하고있는 형편에서 과학원을 창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학력량이 약하면 약할수록 과학연구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국가적인 사업체계를 우선 튼튼히 세워놓고 과학기술발전을 급속히 추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의 우수한 과학자들을 모아 과학연구사업을 집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학원을 조직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의 날에는 몸소 과학원(당시)을 찾으시여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된 과학자들을 축하해주시고 찬성의 한표를 바치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사회발전의 매 시기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주체적인 과학기술발전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의 사상과 령도를 변함없이 받들어오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수놓아오신 헌신의 자욱마다에는 과학기술발전과 인재육성이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나라의 백년대계가 허물어진다는 드팀없는 신조, 과학기술을 틀어쥔 사람만이 미래의 정복자로 될수 있다는 철리가 세차게 맥박치였다.

현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고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강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가장 혁명적인 우리 사상, 우리 총대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되면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모든것이 흥하고 번영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1999년 1월에는 대소한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과학원(당시)을 찾으시여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일을 많이 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도 해주시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여러차례나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과학중시의 숭고한 뜻을 새겨주시며 더 높은 과학의 령마루에 오르도록 고무도 해주시고 과학자들에게 더 좋은 연구사업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여러모로 깊이 마음쓰시며 온갖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짧은 력사적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것을 과학기술중시로선의 기본요구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준엄했던 고난의 그 시절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야전차를 타고 북방의 찬눈길을 달리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잊지 못하고있다.

처절한 시련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리신 운명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었기에 모진 난관을 뚫고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이 개척되고 연구개발핵심력량이 자라났으며 과학기술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이 새로운 높은 단계, 첨단돌파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도 계승되여야 영원하고 빛이 나는 법이다.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의 현실에서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인재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확립되도록 이끌어주시는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며 인재를 널리 찾아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끊임없이 늘여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과학기술의 튼튼한 토대를 발판으로 삼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견인력으로 하여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라는 단호한 결심과 함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

성국가이라고,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고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2014년의 첫아침에는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인재와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시하고 계시는가 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사이에만도 국가과학원을 두차례나 찾으시여 주체과학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으신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서는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전선이야말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는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2018년 1월 국가과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여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세계선진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지식경제강국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고귀한 지침들에는 인재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천하제일의 사회주의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이것이 그대로 정책이 되고 로선이 되여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이 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워지고 과학기술중시가 당과 국가의 전략적로선으로, 과학기술강국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되고있다.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의거해야 할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라는 진리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새겨지고있다.

어디에 가나 과학자, 기술자들이 떠받들리우고있으며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강력한 핵심부대, 핵심력량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받으며 사랑의 금방석에 앉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적극 내세워지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령역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그것이 그대로 강국건설의 전역에서 더 큰 비약적전진으로 이어지고 있는것이다.

세상에 나라는 많고 과학자, 기술자들도 많지만 공화국처

럼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주적존엄과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는 나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온 나라의 관심과 배려속에 사랑의 금방석에 앉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다.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탄탄대로가 아닌 고심참담한 고뇌의 과학탐구의 길을 걷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다운 애국과학자라고 정담아 불리우며 내세워지고 평범한 과학자가 령도자의 등에 업혀 이 세상 가장 존엄높은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는 위대한 화폭이 펼쳐지는 나라는 더욱 없을것이다.

인재와 과학기술을 그토록 중시하는 국가의 관심과 배려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금방석, 행복의 보금자리가 이 땅에 태여났던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미래상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이 하나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령도자의 따뜻한 사랑과 정, 인재와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내세워주는 국가의 정책이 그대로 슴배여있다.

사람들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의 요람, 사랑의 금방석에 앉아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습에서 인재와 과학기술중시를 국책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의 참모습

을 볼수 있는것이다.

2018년 4월에는 높아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존엄과 행복을 백배해주는 절세위인의 웅지가 만사람을 격동시키며 또다시 울려퍼졌다.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과학,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에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을 배우며 인재를 중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나감으로써 부강조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바다를 이루게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인재와 과학기술을 그토록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8년 4월전원회의에서도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집중성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국가적인 과학기술보급망을 확대하고 지역별, 부문별, 단

위별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던것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마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수 없다는 관점이 확고히 확립되고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중시가 한개 공장, 기업소의 범위를 벗어나 시, 군, 도들에로 확대되고있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으로부터 모든 시, 군들에 그물망처럼 뻗어있는 과학기술보급망들을 통하여 과학기술지식들을 정상적으로 보급하고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학습을 생활화해나가며 생산과 경영관리를 과학기술에 철저히 립각하여 진행해나가고있다.

여기에다 해마다 국가적인 관심과 기대속에 과학기술전시회들과 과학기술발표회, 과학기술성과전람회, 과학기술축전들이 진행되여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의 열기를 더해주고있다.

2019년 한해만 보더라도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 전국용접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와 전국재료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전국로보트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와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9,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시회, 전람회, 발표회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러한 크고작은 전시회, 전람회, 발표회들이 나라의 과학

기술발전과 강국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국가의 계획적이고 통일적인 지도와 관심속에 과학자, 기술자들이 시대의 절정에 오르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것과 더불어 《인재》,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광범위한 시대어처럼 통용되는 이 현실.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펼쳐진 자랑찬 화폭이다.

오늘도 공화국은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를 변함없는 국책으로 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고있으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고있다.

과학기술을 자기 가사처럼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을 자기 가사처럼!

이 시대어에 인재와 과학기술중시로 강국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몇해전 2월의 어느날 세계적으로도 몇개 나라만이 생산하고있고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첨단설비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훌륭히 만들어낸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시

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나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을 자기 가사처럼 여겨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지금 이 시각도 지구상에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방대한 계획들, 나름대로의 지론들, 형형색색의 날말들이 차고넘친다.

하지만 오랜 전통을 가진 선진국들과 유명한 리론가,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고금동서의 부피두터운 서적들을 다 펼쳐보아도 이처럼 심오한 뜻과 명쾌한 번영의 철리를 밝혀준 대명제를 찾아볼수 없다.

가사는 사람들모두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뜨거운 열과 정을 다해 가꾸어가는 행복의 밑천에 대한 문제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집안일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마음속 첫자리에 놓인다.

자기 집일을 두고서는 결코 손님이 없는것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쉽없이 하는 일, 한생토록 꾸준하고 부담을 모르며 몸도 마음도 아낌없이 바쳐하는것이 바로 가사이다.

과학기술과 인재를 어떻게 중시해야 하는가를 너무도 명백하게 통속적으로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금 공화국에서는 전례없는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의 사회적기풍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령역, 모든 단위와 초소들에서 과학

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을 천사만사의 첫자리에 놓고 진행해나가는것을 중요한 사업원칙으로 제기하고 실천해나가고있다. 과학기술을 최우선시하고 내세우는 기풍확립이 강국건설의 매 전구들마다에서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것이다.

과학은 기적을 낳는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최근년간 우리 공화국에서는 집안살림살이를 두고 만족을 모르듯이 지식과 재능의 부족을 항상 느껴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과학기술을 대하는것이 사람들 누구나의 기풍으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중시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를 사업작전과 분담의 첫자리, 관심과 헌신의 첫자리, 총화평가의 첫자리에 놓는것을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내세우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실질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누구나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이다.

여기서는 강원도정신의 불길이 타오른 강원도가 앞장에서 좋은 경험들을 보여주고있다.

사실 지난 시기에 강원도의 과학기술부문사업은 응당한 높이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과학기술중시의 빛나는 전성기가 펼쳐지는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는 뼈저린 자책감으로 자신들을 돌이켜본 도의 일군들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새로운 일본새로 과학기술과 인재중시에서 전환을 가져오

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먼저 도의 경제실태에 밝고 실무수준이 높으며 지도능력이 강한 일군을 도과학기술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새로 임명한데 이어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십여명의 일군들과 현장경험이 많고 기술수준이 높은 수십명의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도과학기술위원회의 지도일군력량을 그쯘하게 꾸리였다. 뒤따라 도과학기술위원회를 크고 번듯한 청사에로 옮기게 하는 대담한 조치도 취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도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는데 도의 경제문제를 토의하는 회의들에 도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하여 창발적인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토의하여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고있으며 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와 새 기술연구도입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작성한 대책안들이 즉시에 도의 책임일군들에게 보고되여 집행되고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도과학자, 기술자회의에 도의 책임일군이 어김없이 참가하여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평가도 크게 해주고 고무격려하면서 그들이 옳바른 방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가는 동행자가 되자는 투철한 자세와 진취적인 일본새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모든것을 착상하고 설계하며 기어이 결실을 보고야마

는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이끌어주고 내세워주고있다. 뿐아니라 도의 책임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신상에 대하여 자기 집 식구들처럼 속속들이 알고있고 좋은것이 하나 생겨도 과학자들부터 먼저 생각하며 훌륭한 사업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늘 윈심을 쓰면서 아글타글 뛰여다니는것이 이제는 응당하고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도안에 확립되여가는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의 기풍속에 강원도에서는 최근년간 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으며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국의 앞장에서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이자 증산이고 효률이며 절약이고 예비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하는 기풍이 공기처럼 지배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들이 발휘되고있다.

순천화력발전소의 경우만 놓고봐도 발전소에서는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기술혁신과 새 기술도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전국적으로 소문난 단위로 되고있다.

최근에만도 인재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업전략을 적극 구현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새로운 고압전동기연기동방법을 창안하고 고온공기연소안정화기술을 도입하

였으며 급수뽐프와 송풍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연재의 재자원화를 실현하는 등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을 비롯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워줌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중시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최대로 불러일으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단위는 비단 순천화력발전소만이 아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내리세멘트공장, 강계신발공장, 라선혜성옷공장, 청천강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이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를 단위발전의 전략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밀고나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어디서나 인재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이것이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확립되고있는것과 더불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실현되고 나라의 자립경제가 발전의 상승궤도에로 오르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비롯하여 매 단위들에서 우선시하는 인재와 과학기술중시 그자체가 자기 단위의 발전과 함께 나라의 과학기술을 빠른 시일안에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국가경제의 균형적이며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는데로 지향되고있다.

현시기 공화국에서는 과학연구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본위주의와 같이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는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는 한편 기업체들사이에 앞선 과학기술성과들은 따라배우고 좋은 경험들은 서로 교환하며 도와주고 도움받는 집단주의륜리관계가 이루어지는 속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이 눈에 뜨이게 높아지고있다.

강국건설의 생명선을 지켜가는 일선에 내세워주는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심신을 바쳐 과학연구에 헌신분투하고 있는 공화국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해 가치있는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2018년 12월 평양에서는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장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끈것은 다수확경험을 토론하는 연단에서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떠올린 《천연생물활성제》였다.

리상적인 천연비료로 인기가 높은 이 천연생물활성제는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지력을 떨구는 화학비료와는 달리 그자체가 유기질비료이기때문에 치면 칠수록 지력이 높아진다.

여기에다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아무리 많이 쳐도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주지 않는것으로 하여 그 리용범위가 날을 따라 커지고있는것이 천연생물활성제이다.

2017년 7월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80여개 나라와 단체들에서 내놓은 우수한 발명품들중에서 이 천연생물활성제를 무공해성미량원소복합비료로 인정한것만 보아도 이 활성제의 진가를 가늠할수 있다.

이렇듯 훌륭한 천연생물활성제를 연구완성한 녀성과학자의 과학탐구의 험난한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의지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해나가는 이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그 녀성과학자로 말하면 수의축산학이 전공이였지만 긴장한 식량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일념으로 식물농약연구라는 생소한 학문의 길을 선택하고 수십여년세월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앞세우면서 고심어린 연구의 길을 꾸꾸이 걸어왔다.

하여 그는 우리 나라에 흔한 천연자원에 의거한 효능높은 살충제와 종자처리제, 리상적인 천연비료로 인기있는 천연생물활성제를 비롯하여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거두게 되였다.

2014년 6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아주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온실에 들리시여 잘 익은 도마도들이 천연생물활성제를 도입한 결과라는것을 보고받으시고 매우 만

족해하시면서 현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인것만큼 누가 더 빨리 과학기술화하는가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애국적인 인재로 자라나 부강조국건설을 믿음직하게 견인해나가고있는 녀성과학자와 같은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화국에서는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괄목할만 한 과학기술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산소열법용광로의 통합자동화체계, 대형산소분리기의 가동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시조종하는 PLC 조종체계를 개발완성.

생산기술과 설비제작이 대단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이 우리의 기술로 확립되고 운영.

일명 속성전기도금, 무욕조도금, 국부도금, 붓도금 등으로 불리우는 경제적실리가 큰 솔도금기술이 우리 식으로 개발.

높은 혈전용해활성과 작용속도 등 혈전용해제로서의 리상적인 지표들을 충분히 갖춘것으로 하여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혈전용해제의 국산화실현.

니켈용접봉에 비해 모든 기술적지표가 우월한것으로 하여 경제적가치가 대단한 용접봉제작.

…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주고 그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해주는 이런 과학기술적성과들은 모두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여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이 고귀한 가르치심은 비상한 의미를 안고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의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열기는 더욱 고조되였고 온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등불이 되려는 각오를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떨쳐나섰다.

그와 더불어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를 단위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벌려나가는 기풍이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보다 더 공고해지고있다.

전민이 과학기술인재로

인재는 나라와 민족의 첫째가는 재보이고 자랑이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국의 지위에 오르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수 있지만 인재가 없으면 광활한 령토나 값비싼 자원도 빛을 낼수 없으며 언제 가도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없다.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확립되여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인재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을 갖춘 인재들로 준비시켜 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나날이 고조되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그 어디에서 찾을수도 들을수도 없는 인민적이며 혁신적인 인재육성전략을 세우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공화국이다.

전민을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인재육성전략이 제시되던 력사의 순간을 되새겨보게 된다.

온 나라에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2013년 6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전민무장화의 구호를 들고 전체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

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킨것처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인재를 중시하는 정치가는 많지만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울 그렇듯 원대한 구상을 펼친 위인은 력사의 어느 갈피에도 없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재양성에 힘을 넣는다고는 하지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키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일찍부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제도, 전사회적인 학습체계와 기술전습체계 등 가장 인민적이고 우월한 교육제도가 확립되고 끊임없이 발전되여왔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현시대의 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정연하고 우월한 전민학습, 전민교육체계에 토대하여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인재의 대군을 마련할수 있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였던것이다.

공화국에서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

의 담당자로 준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전체 인민이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 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지식자원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되고있는 오늘의 시대야말로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활용하는것을 초미의 문제로, 삶의 근본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인것이다.

전체 인민을 최신과학지식과 기술기능에 정통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 인재로 키울데 대한 사상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배움의 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과학기술과 생산, 과학기술과 경제가 일체화되고 생산과 경영활동,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현실속에서 과학기술로 튼튼히 준비되지 않고서는 생산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없다는것을 자각한 공화국의 근로자들이다.

령도자의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삶의 진리로 받아들인 로동계급을 비롯한 공화국의 인민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하기 위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이 일어번지고있다.

국가적인 투자와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각 도, 시, 군들에 현대적인 도서관들이 일떠섰으며 전국적범위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현대과학기술과 전문기술을 배울수 있는 과학기술보급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고 그 관리와 운영방법이 부단히 개선완성되여갔다.

더우기 2016년 1월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으로서 과학기술전당이 현대적으로 일떠선것은 온 나라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을 고조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온 의의있는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보급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쑥섬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거점을 꾸리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명칭까지 친히 지어주신 과학기술전당이다.

결코 로력이 남아돌아가고 자금이 많아서가 아니였다.

인재강국, 과학기술강국실현의 오늘과 래일을 담보하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사업이 비할바없이 중대하기에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제재봉쇄속에서 막대한 자금과 품을 들여 과학기술전당을 보란듯이 훌륭하게 일떠세웠던것이다.

지난 시기에 출판된 과학기술도서들과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자도서화되여있는 이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물밀

듯이 찾아왔으며 그 수는 나날이 늘어만 갔다.

과학기술전당이 준공된 후 3년동안에 수천만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봉사 및 교육활동이 진행되였고 2019년의 3달동안에만도 과학기술전당홈페지 열람회수가 10여만회나 더 늘어났다는것만 보아도 선진과학기술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 인민들의 학습열의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알수 있다.

더우기 전국의 모든 과학연구부문,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이 국내콤퓨터망을 통하여 과학기술전당으로부터 실시간 편리한 봉사를 받고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도 서로 교환할수 있게 됨으로써 인민들의 열의는 더한층 고조되게 되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이 그물망처럼 덮이고 여기에 과학기술자료들을 물흐르듯이 내려보낼수 있는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거점으로서의 과학기술전당까지 완벽하게 일떠선것으로 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이 전민을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며 과학기술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거점으로 되고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찾으시는 단위마다 과학기술보급실들에 꼭 들리시여 그 운영을 잘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군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의도를 높이 받들어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보급실을 근로자들에게 자기 전문분야의 과학기술지식을 전수하고 생산자대중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열기를 띠고 추진되여 훌륭한 결실을 보고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이 잘 꾸려져 운영을 정상화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그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여 자기 단위의 기술발전과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 누구나 자기 부문, 자기 단위들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과학기술강의도 받고 자기 사업에 필요한 최신과학기술정보도 열람하면서 지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다.

제한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만이 아니라 생산자대중이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자기 부문, 자기 직종에 맞는 전문지식을 배우고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여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같은 정연하고 우월한 전민학습, 전민교육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있어 그 부분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사업이 날로 활발해지고있는것이 공화국

의 현실이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비롯하여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마음껏 배울수 있는 교육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특히 정보산업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되고 끊임없이 개선향상됨으로써 강력한 인재대군을 육성해낼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마련되였다.

원격교육이라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강의자와 강의를 받는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1800년대 전반기 영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교과서, 학습지도서, 학습과제 등을 우편물로 먼 지역에 있는 학생에게 보내여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서막을 열어놓은 원격교육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며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우월하고 실리있는 일생교육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원격교육을 시대적추세에 맞게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중요대학들에서의 통신교육이 원격교육으로 전환되고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교육이 원격교육과 결합되여 교육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과학기술전당과 각지 공장, 기업소들의 과학기술보급실들,

중요대학들이 하나의 망으로 련결되여 여러 교육수단에 의한 원격교육방식으로 인민들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전민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원격교육체계에 의하여 마음만 먹으면 일생동안이라도 배울수 있으며 개별화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능력에 따라 임의의 2전공, 3전공과목을 선택할수도 있다.

이러한 원격교육체계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축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에 정연하게 세워져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이 되고있으며 그 범위와 수는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2019년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서는 원격교육대학 제1기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들가운데는 40, 50대의 녀성들도 있었다.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속에서도 교원들과 남편들의 방조를 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면서 배우는 재미, 늘어나는 지식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한 학기, 한 학기 과정안을 돌파한 그들이였다.

원격교육대학 제1기 졸업생들가운데는 후보원사이며 교수, 박사인 이 대학의 박사원 원장선생도 있었다.

그로 말하면 피복공학부문의 권위자이며 학술수준도 높았지만 과학자, 교육자들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자면 재교육을 통하여 지식의 로화를 막고 새로운 지식

을 부단히 섭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원격교육대학의 학생이 되였던것이다.

오늘날 지식의 로화주기가 3～5년으로 단축된것으로 하여 최근에는 계속교육방식이 치렬한 기술경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평가되고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볼 때 공화국의 원격교육과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훌륭히 키우는 한편 지식의 로화를 막고 새로운 현대과학기술, 첨단과학기술까지도 습득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교육체계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최근년간에는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까지 우리 식으로 새롭게 확립되여 근로자들속에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지능형손전화기를 가지고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든 강의들을 편리한 시간에 받을수 있으며 필요한 학습자료를 손전화기에 복사해놓고 아무때나 리용할수도 있다. 또한 교육관리프로그람에 의하여 매 학생들이 강의받은 정형과 자체로 진행한 학습과정을 장악하면서 학생들의 리해정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게 되여있는것은 물론 새로운 과제와 참고서를 제시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강의도 해줄수 있게 되

여있다.

한마디로 보다 지능화된 교육관리체계라는것이다.

원격교육에서 하나의 변혁이라고 할수 있는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누구나 하나라도 더 많이 배워 과학기술인재,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해가려는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더 강렬해지고있다.

눈에 띄게 높아지는 자신들의 실력을 두고 신심에 넘쳐 학습에 더욱 열정을 기울이고있는 근로자들모두가 강국건설을 견인해가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해간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최신과학기술지식의 소유자, 첨단기술의 개척자로 준비해가고있다.

이들에 의해 이룩된 과학기술적성과들은 어느것이나 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하고 가치있는 재부들이다.

평양기계대학 원격교육대학을 졸업한 어느 한 차수리소의 로동자는 차체외형부분품들을 적층수지로 만들어 차체의 질량을 줄이고 제작원가를 대폭 낮출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제작방법을 창안하고 기술공정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그 방법을 리용하면 특별한 지구장비가 없이도 임의의 차체부분품들을 찍어낼수 있고 자그마한 차수리소에서도 차체의 다품종소량생산을 능히 할수 있다.

같은 대학을 졸업한 다른 한 녀성로동자는 각종 기계부분

품들의 가공정밀도와 걸면정결도를 높일수 있게 하는 연마석자동균형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의 이동식풀실장치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견방종합직장 수압직기의 조종장치를 비롯하여 생산장성과 경영활동개선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와 장치, 프로그람들이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들로 준비해가고있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창조되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일하면서 배우는 우월하고 정연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가는 놀라운 현실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외국인들은 《조선은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렇다.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속에 전민이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 과학기술인재로 성장해가고있는 자랑찬 화폭은 그대로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확립되고있는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온 사회에 차넘치는 고상하고 문명한 도덕기풍

사람들사이에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서나 사회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필수적인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가운데서도 사랑과 의리, 덕과 정을 근본바탕으로 하는 도덕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법으로는 인간만사를 다스릴수 없으나 도덕은 법이 하지 못하는것을 해내기도 한다. 이런것으로 하여 사회의 건전함을 평할 때 도덕을 그렇듯 중시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중시하는 도덕은 사회주의도덕이다.

사회주의도덕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장 우월한 도덕이다.

전체 인민을 고상한 도덕륜리를 체질화한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 주체적힘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사회주의도덕기풍확립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더우기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시키는데 집중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기에 공화국에서는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을 강국의 지위에 맞는 국풍확립의 절실한 과제로 내세우고 힘을 넣고있다.

사랑과 의리, 덕과 정으로 결합된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사회,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기풍이 국풍으로 만발하는 사회에

는 언제나 화목하고 건전한 분위기가 차넘치기마련이다.

적대세력들의 류례없는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굳건하고 보다 활력에 넘쳐 전진하고있는것도 온 사회에 덕과 정이 차넘치고 뜨거운 사랑과 의리에 기초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펴나고있는데 기인된다.

온 나라 인민이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며 아름다워지는것과 더불어 온 사회에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기풍이 차넘치고 그것이 국풍으로 확립되고있는것이 오늘날 공화국의 현실이다.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

한 나라의 도덕기풍에 대하여 론할 때 혁명선배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세우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혁명선배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이 혁명에 대한 태도인 동시에 혁명가들의 도덕의리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혁명의 전세대, 웃사람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 문제는 해당 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 도덕적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오늘 국제사회는 온 사회에 사랑과 의리에 기초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펴나고있는 공화국을 두고 덕과 정이 넘치는

나라라고 하며 찬탄과 부러움을 아끼지 않고있다.

그들은 특히 공화국에서 혁명선배들을 무한히 아끼고 존대하며 내세워주는 기풍이 전인민적인 풍모로, 전사회적인 풍조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부러움과 찬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자기 수령의 풍모를 닮는다고 하였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이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기풍의 소유자로, 조선이 사랑과 의리, 덕과 정이 공기처럼 흐르는 사회로 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인간사랑의 화신이시며 숭고한 도덕의리의 체현자이신 절세위인들의 풍모를 닮아가기때문이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온 혁명전사들과 전우들, 항일의 로투사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존대하시며 주실수 있는 은정과 배려를 모두 베풀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서 먼저 떠나간 렬사들과 전우들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지켜오시였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혁명렬사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전국각지는 물론 해외에까지 일군들을 보내시여 유가족들

을 찾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으시여 극진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는 유격전을 하는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희생된 혁명렬사들의 유자녀들을 슬하에 두시고 따뜻이 품어안아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해방후에는 곁을 떠나간 혁명렬사들의 유언을 반드시 실현하는것이 희생된 동지들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지켜야 할 동지적의리라고 하시며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전국각지와 해외에까지 일군들을 보내시여 혁명렬사들이 남기고간 유자녀들을 빠짐없이 찾도록 하시고 그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그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지어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희생된 인민군장병들과 빨찌산들, 애국렬사들의 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설치하고 그들을 돌봐줄데 대한 내각결정까지 채택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대성산의 주작봉마루에 자리잡고있는 혁명렬사릉도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떠받들려 일떠선 대기념비이다.

간고하고도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희생된 렬사들의 생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 혁명렬사릉건설을 발기하시고 심중에 깊이 새겨두시였던 전우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으시려

고 오래동안 심려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바쁘신 일도 뒤로 미루어가시며 렬사릉을 찾으시여서는 렬사들을 한명한명 회상하여주시며 반신상제작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세심히 지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가 있어 혁명렬사들의 삶이 빛날수 있었다.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먼저 떠나간 혁명전사들의 생을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혁명렬사들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는 삶을 받아안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참다운 혁명적의리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숭고한 도덕의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오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성산혁명렬사릉 개건확장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을 때에도 혁명렬사릉에 안치된 혁명렬사들은 다 영웅이라고 하시며 공화국영웅메달을 화환진정대중심에 크게 잘 부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한없는 은정속에 항일혁명렬사들은 비록 생전에 금별메달을 받지 못하였지만 모두가 우리 혁명이 낳은 영웅의 첫 세대로 조국과 더불어 영생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떠받들려 조국해방전쟁시기 간호원으로 싸우다 희생된 한 녀전사가 수십년이 지난

후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희생된 한 비행사의 안해가 전사한 남편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고 그 아들이 자라나 아버지가 지키던 초소에 서는것과 같은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태여나게 되였다.

함께 일하던 일군들이 곁을 떠났을 때에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잠을 이루지 못하시며 그들의 생을 빛내여주시고 유가족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참되게 살도록 보살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의 세계에 이끌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발표하시여 앞선 세대의 혁명가들을 혁명의 선배로 존대하는것이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이라는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기풍이 더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이렇듯 공화국에서는 혁명적도덕의리의 체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감동깊은 화폭들이 펼쳐지고 그 력사와 전통이 대를 이어 계승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선배들을 사회적

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그들이 혁명선배라는 영예감을 가지고 로당익장하면서 자기의 한생을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할것입니다.》

그이의 이렇듯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조국해방과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안아온 혁명의 1세, 2세들이 민족의 장한 아들딸,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지고 공화국의 각이한 년대들에 특출한 위훈을 세운 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 영웅전사들의 삶도 최절정에서 빛나고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간애와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떠받들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으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는 기풍이 온 사회에 더욱 차넘치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떠

받들려 조국해방과 조국수호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이 제4차, 제5차, 제6차 전국로병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행사들에 대표로 참가하여 훌륭한 혁명선배, 조국을 지킨 은인,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라는 최상의 믿음과 영광을 받아안으며 전사회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나라의 경치좋은 곳마다에 로병들이 보양기간 건강치료와 문화정서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을 즐기는데서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모든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전쟁로병보양소들이 특색있게 일떠서 전쟁로병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로당익장하고있다.

전쟁로병들만이 아니라 조국강토를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친 공로있는 년로자들도 사회적으로 특별한 존경과 우대를 받고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이 후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로,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간주되고있는 곳이 우리 공화국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전쟁로병들과 공로자들을 귀중한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그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되여 세심히 보살펴주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중구역 류성동에는 아흔을 가까이하고있는 한 전쟁로병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과정에 부상을 입은 영예군인인 그 전쟁로병에게는 자손들이 자그만치 20명이나 된다.

그들가운데는 대학생도 있고 소년단넥타이를 맨 나어린 학생도 있으며 어느 무역기관의 일군도 있고 로동자도 있다.

나이도 직업도 서로 각이한 그 많은 자손들이 모두 영예군인전쟁로병과 혈연관계를 맺고있는 자손 아닌 자손들이다.

로병이 몸이 불편하여 조금만 앓아누워도 귀한 보약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해가지고 찾아와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여러가지 기념품과 보약재를 안고 자주 찾아와 건강한 몸으로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뜨거운 정을 기울이는 그들을 이 전쟁로병은 친혈육처럼 여기고있다.

오랜 세월 늘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낄세라 알뜰살뜰 돌봐주는 그들이 왜 남이겠는가고 이야기하는 전쟁로병의 말에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을 응당한 도덕의리로 간주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느낄수 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근로자들, 인민들이 전쟁로병들, 공로자들과 혈육의 정을 나누며 그들이 지나온 인생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생의 말년에도 복락을 한껏 누려가도록

온갖 정성과 지성을 다하고있다.

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것은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가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선배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그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업적은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은 모든 세대들이 혁명선배들의 정신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빛나게 완성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항일혁명선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 경의를 드리고 그 관리에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는것이 온 나라 인민의 생활로 되고있다.

사람들 누구나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고있으며 소박한 진정이 비낀 지원품들을 안고 찾아와 혁명렬사릉보존관리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인민군렬사들이 지

녔던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일 결의를 다지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그 열기는 해가 가고 날이 흐를수록 더욱 승화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건립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연 백수십만여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다는것만 보아도 공화국의 인민들이 지닌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어떠한가를 잘 알수 있다.

렬사묘를 찾아 경의를 드리는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끓고있는것은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위대한 시대정신으로 내세워주시고 영웅전사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고결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본받아 혁명선배들의 업적과 위훈을 계승하고 빛내여갈 일념뿐이다.

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관리에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안치되여있는 유가족이 없는 렬사들의 친자식이 될것을 결심하고 그들의 생일날과 전사한 날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마다 이곳을 찾아 새 세대의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평양농업대학의 학생들과 사진도 유해도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최정웅영웅의 친손녀가 될것을 결심하고 렬사묘를 자주 찾고있는 중구역의 처녀.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싸운 인민군렬사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렬사묘관리에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락원고급중학교의 교원과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처럼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일 결의를 안고 여러종의 나무모 수천그루를 마련하여 렬사묘에 보내준 군인…

이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수많은 새 세대 청년들과 근로자들, 인민들이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간직하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순결하고 깨끗한 진정을 기울이고있으며 이것이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확립되고있는것이다.

언제인가 외국의 어느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동유럽의 나라들에서 전쟁참가자들의 값비싼 위훈의 표식인 훈장과 메달들이 시장의 상품으로 매매되던 비극이 결코 그리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전쟁참가자들이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발휘하여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귀중한 혁명선배들로 인민의 경의를 받으며 인생의 말년에도 복락을 누려가고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몇푼의 퇴직금에 기대여 근근히 살아가거나 그마저 없으면 락엽신세인 그들이 조선에서는 인생의 최절정에 올라서고있다.

이것은 오직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의 풍경이다.

세상에는 전쟁참가자들이 많지만 조선의 로병들처럼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사회적우대와 존경을 받고있는 복받은 전쟁참가자들은 없다.》라고 피력하였다.

어찌 전쟁로병들뿐이랴.

조국강토를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친 공로있는 년로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모든 년로자들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떠받들리우고있다.

상업봉사기관들에서는 전쟁로병들과 공로있는 년로자들을 위해 특별봉사를 하는것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서나 이들에게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돌봐주고있으며 이것이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고있다.

세월의 풍파에도, 세대의 교체에도 끄떡없이 그 어디에 가나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떠받들어주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펼쳐지고 온 나라가 덕과 의리의 대화원으로 전변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

이는 혁명적동지애의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온 사회를 동지의 세계, 도덕의리의 화원으로 꾸려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혁명선배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낳은 숭고한 도덕의리의 실록이다.

미덕이 더 높이 발휘되는 나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덕과 정이 많은 민족이다. 덕으로 살고 정에 울고웃는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은 민족이여서 자기보다 남을 더 위해주는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루밤 묵어가자고 해도 따뜻이 반겨맞아들이고 이웃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온 마을이 떨쳐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화목을 도모한것이 조선민족이다.

절세의 위인들을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는 덕과 정을 귀중히 여기는 고유한 민족성이 적극 계승발전되여왔으며 오늘날에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덕과 정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바쳐가는 미덕, 사람들모두가 한가정, 한식솔이 되여 서로 돕고 위해주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따스한 정이 온 사회에 공기처럼 흐르고있다.

덕과 정으로 화목하며 덕과 정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주의화원이라는데 공화국의 진모습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

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덕과 정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도와주고 보살펴주며 혜택을 베푸는 고상한 품성, 남을 사랑하거나 친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서 큰 작용을 한다.

물론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은 법이다. 그러나 서로 돕고 위해주며 단결된 힘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 지켜지는 법보다 사람들의 량심에 의하여 지켜지는 도덕이 더 중시되고있다.

덕과 정이야말로 사회관계의 기초이며 집단의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공화국에서 사람들사이에 아껴주고 위해주는 따뜻함이 오가고 온 사회에 화목하고 건전한 분위기가 확립되고있는 그 근저에도 다름아닌 덕과 정이 있다.

장기간에 걸치는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속에서도 사회에 순수한 인간미와 고상한 도덕륜리가 차넘치고 사람들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화목하게 살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은 결코 잘 먹고 잘살자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유족한 생활

을 마음껏 누리는것과 함께 높은 문화수준과 도덕품성을 지니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자는데 있다.

비록 생활상의 어려움과 곤난이 있다고 하여도 서로 도와주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미풍과 미덕이 온 사회에 꽃펴나게 되면 사회에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건해지는것이다.

온 나라에 사회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전례없이 강화되는 속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돕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미덕의 소행들이 련이어 꽃펴나고있는것이 공화국이다.

2019년 1월 19일부 《로동신문》에는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회안청년탄광의 김춘화녀성에 대한 기사가 실렸었다.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원호와 탄광지원을 잘하여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온 그의 소행도 감동적이였지만 30여년간 특류영예군인인 남편을 온갖 성의를 다해 잘 돌봐주고있다는 사실은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두눈과 두팔과 한다리가 없는 남편의 병치료를 위해 수십여년세월을 아침저녁으로 약초를 달이고 갓난아이 대하듯 세면을 시키고 밥을 떠먹이며 옷도 입혀주며, 신병으로 앓으면서도 앞 못 보는 남편이 눈치챌세라 터져나오는 신음을 강잉히 참고 이른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온갖 성의를 다하여온 김춘화녀성.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육체적부담도 달게 여기고 꿋꿋이 이겨내며 모든것을 다하고 두 자식까지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그의 순결무구한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자본주의사회에는 불상사로 불구가 되면 일생을 언약했다가도 언제 그랬던가싶게 외면하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덕과 정이 차넘치는 공화국에는 김춘화녀성과 같이 아름다운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 그 어디에나 있다.

많은 청춘남녀들이 나라에서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는 영예군인들의 지팽이가 되고 눈이 되고 팔이 되여 일생을 바쳐가고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미풍으로, 기풍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다른 길을 걸었더라면 보통사람들처럼 편안하고 화려한 생활을 즐길수 있었으련만 그 모든 향락을 양보하고 스스로 영예군인의 안해, 남편이 되여 어려운 길을 변함없이 가고있는 미덕의 소유자들.

그들의 소행이 감동적이라면 영예군인만이 아니라 장애자들의 한생의 길동무가 되여 일생을 같이하는 청년들의 미덕은 또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모른다.

몇해전 공화국을 방문한 기회에 우연히 한 장애자녀성의 류다른 결혼식을 목격하였던 유럽의 한 해외동포는 그때 받

은 커다란 충격에 대해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남겼다.

《…밀차에 앉은 신부를 앞세우고 결혼식장으로 들어서는 신랑을 보는 순간 나는 동정감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청춘남녀들의 사랑이나 결합이 경제적관계, 리기적타산에 기초하는 서방세계의 사고와 현실에 익숙되여온 나로서는 불구인 신부에게 장가를 가는 신랑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일정한 대가를 담보로 결합하리라는 제나름의 생각으로 일종의 동정심이 우러났다.

하지만 전도유망한 기계기술자이며 직장적으로도 손꼽히는 혁신자인 신랑과 두발이 없는 장애자신부사이의 사랑의 로맨스를 들으며 자신이 너무도 엄청난 억측을 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죄되는것임을 인정했다.

사람들모두가 친형제가 되여 화목하게 사는 조국땅에서 처녀가 두발때문에 일생을 홀로 살아야 한다면 령도자께서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자기가 그와 한마음이 될 때 그의 밝은 모습은 더 아름다워질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청혼하였다는 총각.

총각의 짐이 되여 한생을 살고싶지 않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청혼을 단호히 거절하였다는 처녀.

일생을 홀로 살면 살았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처녀의 마음이 옥처럼 맑고 깨끗하다면 처녀에게서 랭대를 받으면서까지도 변함없이 진심을 바쳐온 청년의

진정은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것인가.

마치 어느 성전에 나오는 사랑의 신화를 보고 듣는것만 같았고 신랑, 신부가 사랑의 천사들로 안겨왔다.

내가 사는 서방세계에서는 모든것이 돈에 의해 규제된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결혼도 무의미한것으로 되는 그 사회에서는 백만장자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불구자들이 결혼에 대해 상상조차 할수 없다.

그런데 북부조국의 청년들은 그런 리기적타산이란 전혀 없으니 세상에 이처럼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관을 지닌 청년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재산이나 명예의 높이가 아니라 애국심의 높이, 정신세계의 높이를 사랑의 기준으로 삼는 북의 청년들앞에 절로 머리가 숙어짐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북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나누는 인간들, 그 어느 나라 사람들도 따를수 없는 고상한 정신세계를 체현한 천사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다물이 짠가를 아는데는 한모금이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한 동포의 이 길지 않은 체험담을 통해서도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고상한 미덕을 체질화한 공화국의 인민들의 순결하고 깨끗한 정신세계, 온 사회에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기풍이 확립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뜨겁게 느낄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도 메마른 땅에 떨어지면 고운 꽃과 알찬 열매를 기대할수 없듯이 사람들도 어떤 사회제도를 만나는가에 따라 아름다운 인간으로 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수도 있다.

사회주의가 인간의 덕과 정이 만발하는 화원이라면 자본주의는 덕과 정이 사멸되여가는 황량한 사막과도 같다.

너 아니면 나라는 극단한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고유한 미덕과 인정이 돈이나 권력에 의하여 짓밟히우는 자본주의사회야말로 패륜패덕이 란무하고 사람들사이에 서로 반목질시하며 물고뜯는 약육강식의 생지옥, 덕과 정이 메마른 사막화된 사회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늘날 지구의 도처에서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인간위기》를 두고 커다란 공포와 위구심을 느끼고있다.

지구상 여기저기에서 인간적인것이 더욱더 사멸되여가는 현실에 대한 한탄의 소리가 높아가지만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기풍이 차넘치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서로 돕고 위해주는 따뜻한 정과 화목이 온 사회에 넘쳐흐르는 가운데 장애자들과 부모없는 아이들, 년로자들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인간이 누릴수 있는 만복을 모두 즐기며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다.

국가의 극진한 관심과 보살핌속에 장애자들이 차별을 모

르고 건강한 사람들과 꼭같이 평등한 생활을 누리고 나라의 방방곡곡 경치좋은 곳들마다에 궁전같은 육아원, 애육원들이 일떠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온 나라에 덕과 정이 넘쳐흐르는 속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주는 미덕의 주인공들이 나날이 늘어가고있으며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의 친자식, 친혈육이 되여 여생을 따뜻이 돌봐주는 가슴뜨거운 소행들이 평범하고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한가정의 외동딸로 자라나 처녀시절의 꽃망울을 금방 터치던 18살 꽃나이때부터 부모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워온 강선땅의 처녀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속에 《처녀어머니》라는 새로운 시대어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가 하면 백마땅에서는 8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처녀가, 평양에서는 11명의 아이들을 맡아안은 처녀가 《어머니》라 불리우며 아름다운 미덕의 주인공으로 사람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있다.

어찌 이들만이랴.

환갑이 지난 나이에 갓난애기를 3명씩이나 맡아 훌륭히 키워 사회에 내세운 대동강구역의 리광호로인, 스스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여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사랑과 헌신을 바쳐가고있는 송원군의 엄정옥녀성과 동림군의 림복남, 유영희부부, 자식이 없이 홀로 살고있는 한

로인의 친딸이 된 서흥군의 리정희녀성, 자식을 잃고 홀로 적적하게 지내고있는 로인을 자기 집에 데려다 친부모로 모시며 혈육의 정을 부어주고있는 혜산시의 주창봉, 김혜란부부를 비롯한 수많은 미덕의 소유자들이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대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며 사회주의도덕기풍확립열기를 더해주고있다.

사회주의대가정에 미덕의 향기를 더욱더 만발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들은 결코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티끌만 한 사심과 추호의 변심을 모르는 참다운 사랑과 헌신을 지닐 때만이 겹쳐드는 모든 난파도들을 꿋꿋이 이겨내며 뭇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십년을 두고도 오르기 힘든 아득한 정신도덕적높이에 오를수 있는것이다.

인간의 순결함, 덕과 정으로 가득차있는 참된 인간의 미덕에 대해 다시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부부가 있다.

20여년간 외진 령의 중턱에서 도로관리원으로 일을 하면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친부모의 사랑과 정을 기울여온 평안북도 구장군의 최명화, 류옥희부부.

뜻밖의 큰물속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고 생을 마친 한 로동자의 딸,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없이 고아가 된 처녀애가 남같이 느껴지지 않아 손을 잡아끈것이 인연이 되여 키우기 시작한 부모없는 아이들이 무려 55명.

한 자식을 키우는데도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는데 하물며 친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을 수십여명이나 키운다는것이 얼마나 힘에 부치였겠는가.

언제인가는 3살 난 은일이라는 아이가 되게 앓은적이 있었다.

얼마나 세게 앓았는지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같았고 팔다리가 늘어지고 눈까풀이 뒤집혀져 정신까지 잃었었다.

그러는 은일이를 품에 안고 신발을 신을새도 없이 집을 나선 옥희녀성.

아이를 안고 달려가다가도 몇번이나 서서 아이한테 귀를 기울이고 들릴듯말듯 한 숨소리를 느끼면 또다시 달려가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달려온 녀성, 아이를 안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된 얼굴로 진료소에 들어선 녀인의 먼지투성이, 피투성이의 발을 보았을 때 의사들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이렇게 자신들의 꾸준하고도 피타는 헌신으로 아이들과 혈연의 정을 맺었고 그들을 나라의 참된 아들딸들로 키워 내세운 도로관리원부부의 인정미는 만사람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군의 책임일군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들부부가 알고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름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십명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온갖 지성과 성의를 다 바쳐온 사실들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지 모른다.

고마운 제도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뜨거운 진정이 있었기에 그 깊은 산중에서도 수많은 아이

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내세울수 있은것이다.

덕과 정이 사회전반에 공기처럼 흐르는 공화국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것이 사람들 누구나의 초보적인 륜리로, 도덕으로 되고있으며 지어 동지를 위해 자기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고유한 풍모의 하나로 간주되고있다.

뜻밖에 구조물이 기울어지는 위험속에서 동지들을 떠밀치고 구조물을 맞받아나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신광리의 리명진, 갱막장에 뜻밖의 붕락이 지는 위급한 순간 자기 한몸을 희생적으로 내대여 귀중한 동지들을 구원한 통천탄광의 김정철, 뜻하지 않게 용광로의 열가스관이 달아오르면서 로가 폭발될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가스농도가 위험수치를 넘어선 승압장으로 서슴없이 뛰여들어가 발브를 열어제끼고 숨을 거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박현철…

이들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아낌없이 바치고 시대의 영웅들로, 미덕의 체현자들로 조국과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고대로마의 시인이였던 마르티알리스는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하였다.

남을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야말로 인간사랑과 화목, 덕과 정의 최고발현이며 그런 인간들의 생이야말로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못하는 아름답고 진정한 삶인것이다.

개인주의에 물젖어 《너 아니면 나》라는 가치관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온 나라 인민이 덕과 정으로 이어져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것이 고상한 미풍으로, 국풍으로 되고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남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는것이 인간의 본능으로, 도덕륜리로 되고있는것이다.

몇해전에는 나어린 소년이 동무들을 위해 생명을 서슴없이 내대는 감동적인 소행이 발휘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었다.

학급동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린산소학교 4학년의 조혁철소년이 문구천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2명의 녀학생들을 발견하였을 때는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무렵이였다.

주위에 자기들밖에 없다는것을 알아차리고 함께 있던 동무들이 미처 어쩔 사이도 없이 깊이를 알수 없는 물속으로 뛰여든 혁철소년이였다.

같은 소학교의 2학년 녀학생을 겨우 찾아 기슭으로 끌어내고 또다시 물속으로 몸을 돌릴 때 그 어린 몸에서는 이미 기력이 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소년은 다른 소녀를 구원하기 위해 주저없이 물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갔다.

점점 기운이 진해가는 속에 몸은 자꾸만 돌덩이처럼 가라

앉아 좀처럼 전진하기 어려웠으나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 다른 녀학생을 찾아낸 소년은 전신의 힘을 다하여 소녀를 기슭으로 힘껏 떠밀고는 물속에 가라앉아 다시는 솟구쳐오르지 못하였다.

혁철소년이 2명의 녀학생을 구원하고 생을 마쳤을 당시의 나이는 9살이였다.

9살, 말그대로 짧디짧은 생이였지만 소년은 자기의 최후로 이 땅에 사는 새 세대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세상에 비쳐주고 갔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들은 결코 그 어떤 한순간에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빛나는 생은 고결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것이다.

그 나날에 《나》보다 먼저 《우리》를 더 중히 여기고 동지들과 집단의 기쁨이고 행복이자 자기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것이 사람들 누구나의 확고한 인생관으로 자리잡게 되는것이다.

보통날의 하루하루를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으로 이어가는것이 사람들 누구나의 생의 희열과 갈망으로, 사회의 풍조로 되고있기에 이 땅에서는 불같은 인간애, 무비의 희생성이 본능으로, 도덕으로 발현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기풍이 나라의 국풍으로 더 높이 발양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언제인가 한 해외동포도 《…나는 마치도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진귀한 약초를 캐내기 위해 배낭을 메고 심산유곡을 헤매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의 미담들을 채집하여 하나씩, 둘씩 나의 배낭을 채워가려 했다. 헌데 이것이 웬 일인가. 깊은 숲속 혹은 들판에 희귀하게 하나씩, 둘씩 숨어있어야 할 미담의 꽃송이들이 조국의 들판에는 마치도 번식력이 강한 풀들인양 온 천지를 뒤덮듯 무수히 피여있지 않는가.》라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오늘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로 굳게 뭉쳐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인덕, 인정이 온 사회에 끝없이 만발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도덕기풍이 온 나라에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는 속에 공화국에서는 사회성원들사이에 례의도덕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전사회적으로 확립되고있다.

아래사람들은 웃사람을 존경하고 도와주며 웃사람은 아래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뜻이 보살피고 이끌어주면서 상하간에 서로 정을 나누고 한마음한뜻으로 일해나가고있다.

동지를 무한히 아끼고 언제나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힘들어하거나 앓는 사람, 뒤떨어진 사람일수록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더 위해주고 고무격려해주고있는것이 사회의 기풍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이와 함께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극진히 공대하고 부부사이에 인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믿고 도우며 형제들사이에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훌륭한 가풍이 세워져 가정의 화목이 꽃펴나고있다.

자기를 배워준 스승과 모교를 잊지 않고 진정을 다하며 설날을 비롯한 명절날이면 로인들을 비롯한 웃어른들을 먼저 찾아가 인사를 하고 함께 일하다가 먼저 간 동지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가는 례의도덕기풍이 온 사회에 확립되는것과 더불어 온 나라에 건전하고 고상하며 문명한 도덕기풍이 확립되고있다.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쳐나는 미덕은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대화원을 아름답게 가꿔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에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덕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마를줄 모르는 정이 온 나라에 미덕의 대화원을 펼쳐놓았고 그 사랑과 정에 이끌려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화목한 대가정이 이루어진것이다.

그 어디에도 비기지 못할 사랑과 인정의 세계에 이끌려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는것이다.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세워가며

오늘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도덕기풍이 국풍으로 확립되여 가고있는 속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규모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옷차림과 몸단장을 현대적미감이 나면서도 우리 식으로 고상하고 민족적정서가 있게 하려는 열의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사회의 도덕적면모와 문명수준은 사람들이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어떻게 지키며 옷차림과 몸단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는 사회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세우는데서 례의도덕 못지 않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생활의 하루하루는 도덕으로 시작되고 도덕으로 끝난다고 할수 있다. 도덕을 떠난 인간생활, 사회관계라는것은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공중도덕은 사회공동생활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개인이 집단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이다.

사회질서 또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질서로서

그 밑바탕에는 량심에 기초한 도덕이 놓인다.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는 사회와 집단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에 의하여 발현되는 도덕인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또 높은 직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자기만을 알고 집단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에 대하여 모르면 문명에 대하여 론할수 없는것은 물론 사회와 집단앞에 떳떳하다고 말할수 없다.

공중도덕과 사회질서가 사람들의 품격과 문명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고 볼 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잘 지켜야 사회전반에 건전한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집단주의를 본성으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공중도덕과 사회질서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복무하고있으며 그를 잘 지키는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도덕적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가 공중도덕을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으로 간주하고있으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지키는데서 자각적인 열성을 발휘하고있다.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지키는데서 사람들이 높은 도덕적수양을 지니고 자각적으로 준수하는것이 기본으로 되고

있는것이다.

려객운수수단을 리용할 때만 보아도 누구나 오르고내리는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물론 빈자리가 있으면 저저마다 웃사람들과 년로자들, 애기어머니들에게 양보할뿐아니라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앉고있는 자리까지도 내여주며 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성의를 다하고있으며 이것이 일상생활로 되고있다.

《뻐스안에서 손님들이 저저마다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생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평범한 뻐스운전사의 이 말에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제도, 미덕이 평범한 일로 되고있는 공화국의 모습이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다.

려객운수수단리용에서만이 아니다.

공원과 유원지, 상점과 식당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시설들을 애호하며 정히 다루는것을 비롯하여 문명하고 례절바르게 행동하고있으며 누구나 도로에서 걸음길과 건늠길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가고있다.

극장과 영화관을 비롯한 문화휴식장소들에서도 말과 행동을 례절있게 하며 공연을 관람할 때에는 박수도 열렬히 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출연자들에게 꽃다발도 안겨주면서 공

연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있다.

언제 어디서나 제정된 질서를 잘 지키고 례절바르게 행동하며 서로 양보하고 편의를 도모해주는 고상한 풍모를 발휘하는것이 사람들 누구나의 자각적이며 일상적인 생활관습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사회전반에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확립되고있는것과 더불어 온 나라에 화목한 분위기가 흐르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는것과 함께 옷차림과 몸단장을 고상하고 례절있게 하는것도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겉 볼 안이란 말이 있듯이 외모는 그 사람의 사상정신상태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옷차림과 몸단장을 단정하고 문화성있게 하고 말과 행동을 겸손하고 례절있게, 문화적으로 할수록 그 사람의 인품이 돋보이게 된다.

옷차림과 몸단장을 보고도 그 사람의 문화수준과 준비정도를 알수 있으며 더우기는 그 사회의 건전함과 문명함을 평가할수 있는것이다.

옷차림과 몸단장을 잘하는것은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것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례의, 사회와 집단에 대한 례절을 지키

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사회성원들이 옷차림과 몸단장을 깨끗하고 문화성있게 하여야 시대의 숨결이 차넘치고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살아나는 생활양식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끝없이 아름다와지며 사회는 보다 건전하고 문명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옷차림과 몸단장을 단정하고 례절있게 잘하는것을 단순히 생활방식에 한한것이 아니라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를 지키고 빛내이며 사회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고있으며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자기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에 늘 깊은 주의를 돌리고있다.

옷차림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이라고 할수 있다.

먼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은 우수한 옷차림례절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방안에 있을 때 입는 옷, 밖에 나설 때 입는 옷, 명절에 입는 옷을 비롯하여 때와 장소에 맞게 옷차림을 언제나 깨끗하면서도 고상하게 하였고 다른 집에 찾아갈 때에도 문앞에서 옷차림을 한번 살펴보고 옷매무시를 바로한 다음에야 집주인을 찾았으며 손님을 맞이할 때에도 먼저 자기 옷차림부터 살펴보군 하던 우리 인민이였다.

우리 민족의 이렇듯 훌륭한 문화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발전하여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사람들모두가 옷차림과 몸단장을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현대적미감이 나면서도 우리 식으로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여러가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극장,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에 갈 때에는 옷차림과 몸단장을 단정하고 깨끗하며 문화성있게 하고있으며 즐거운 분위기가 넘치는 장소에 갈 때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제례와 같이 슬픔을 당한 곳에 갈 때에는 단조롭고 검소하게 하는것이 생활관습으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상적으로 옷차림과 몸단장을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아름답고 문화성있게 하며 사회의 풍치를 돋구고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뚜렷이 표현되도록 하고있다.

녀성들을 비롯하여 사람들 누구나가 옷을 하나 입어도 자기 나이와 몸매에 어울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검박하고 겸손한 품성이 잘 안겨오게 입고있으며 몸단장을 하여도 조선사람의 정서와 감정에 맞으면서도 얼굴생김새와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고 다니고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옷차림과 몸단장에 대한 사람들의 미학적요구는 날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맞게 공화국에서는 편의봉사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 인민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우수한 민족성을 잘 살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기호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헌신하고있다.

이렇듯 온 나라 인민이 옷차림과 몸단장을 더욱 아름답게 함으로써 온 사회에 건전하고 랑만적이며 문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사회주의문화를 개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해가고있다.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기풍이 국풍으로 확립되고있는 공화국에서 또 하나의 특유한 풍치는 민족옷차림이 적극 장려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열리고있는데 이를 통하여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우리의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우리 민족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주는것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우리 식의 옷차림문화가 보다 더 발전하고있다.

2019년에 진행된 제17차 전국조선옷전시회만 보더라도 나날이 발전하는 공화국의 민족옷차림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라고 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조선옷을 더욱 발전시키고 앞선 조선옷가공기술을 전국의 피복부문에 널리 보급하는것과 함께 조선옷설계와 가공방법에서 제

기되는 기술적문제 등에 대한 강습과 경험발표회를 통하여 해당 부문 기술자들사이에 경험교환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 조선옷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 전국각지의 피복제품생산단위들과 각 도의 편의봉사부문에서 제작한 700여점의 조선옷과 수십점의 갖신 등이 출품되였었다.

우리 민족옷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인 색조화, 장식 등의 예술적형상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린 아름다운 조선옷들과 우리가 만든 비단천과 모시천에 목란꽃, 진달래, 들국화 등을 형상한 훌륭한 조선옷들, 손수놓이, 그림그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장식기법을 리용하여 만든 결혼식옷, 명절옷, 일상옷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조선옷들…

특히 하얀 저고리와 하늘색치마로 은은하면서도 아름답게 색조화를 맞추고 거기에 나비장식을 한 치마저고리와 민족성이 짙은 마고자는 전시회장을 찾는 사람들속에서 우리 조선옷이야말로 볼수록 부드러운 봄날을 련상케 하는 아름다운 옷이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느 한 단위에서는 재단사들과 가공자들이 출품할 조선옷을 만들면서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고 세련미를 갖추어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 깃, 고름, 동정과 같은 조선옷의 고유한 형태적요소들을 잘 살리

면서도 저고리도련선, 소매배래기선의 가공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여 조선옷가공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렇듯 조선옷을 시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민족적특성이 살아나게 제작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력력한 조선옷전시회장은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아름다운 꽃바다를 방불케 하였으며 이곳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안겨주었다.

이런 계기들이 인민들에게 날로 세련되여가는 우리의 조선옷에 대한 긍지를 안겨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사람들속에 조선옷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어디에 가나 녀성들이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는것을 목격할수 있으며 녀성들만이 아니라 로인들과 아이들속에서도 조선옷을 즐겨 입는것이 풍조로 되고있다.

특히 국가적기념일들에는 전국의 곳곳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산뜻하게 차려입고 춤을 추며 명절을 기념하는 사람들로 하여 온 나라가 꽃바다로 화하기도 한다.

이렇듯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족적인것을 살리면서 현대적미감에 맞게 다양하게 옷차림과 몸단장을 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잘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사회전반에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세워지고 사람들속에서 일상적으로 자기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에 늘 깊은 주의를 돌리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현대적미감이 나면서도 우리 식으로 고상하고 민족적정서가 있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 그것이 국풍으로 되여가고있는 조선의 참모습이다.

*　　　*

새로운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맞이한 위대한 **김정은**시대.

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시대에 공화국은 부강조국을 건설하여온 자랑찬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많은 국풍들을 적극 살려나가는것과 함께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국풍을 계속 창조해나가고있다.

국호와 국기, 국장과 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고 남녀로소 누구나 국어, 국화, 국수, 국조, 국견, 국주와 같은 나라의 상징들을 잘 알고 적극 애호하며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것이 전사회적인 풍조로 되여가고있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대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헌신의 땀과 열정,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가고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루어내고있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사회주의의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 자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업을 성취할 열의로 세차게 고동치는 조선인민이다.

전체 인민의 이러한 감정과 지향이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풍조로, 국풍으로 더욱 공고히 확립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들이 계속 수립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모든 지역이 항상 자기의 심장인 수도를 각방으로 보위하는것도 국풍이지만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렇듯 말이나 글줄우에서가 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국풍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선의 정치군사적힘은 끊임없이 증대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는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져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온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미덕이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우리 제도, 우리 정권, 우리 생활이

제일이라는 신념이 맥박치고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갈 불같은 열정이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인민의 지향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많은 국풍들이 나라의 확고한 기풍으로 더욱 공고해지고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이 계속 수립되는 속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놀라운 전변이 련이어 일어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이다.

번영에로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해나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기적인 비약과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오고있는 조선이다.

지구상에 우리 공화국처럼 자랑스러운 국풍들이 많으며 강국건설을 추동하는 국풍들이 새롭게 수립되고있는 나라, 전도양양한 국가는 없을것이며 조선인민처럼 승리에 대해 확신하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고유의 국풍들을 창조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용진해나가는 인민은 없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앞으로도 사회주의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들을 계속 수립해나갈것이며 그와 더불어 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불패의 사회주의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칠것이다.

세계에 자랑높이! 세계가 보란듯이!

국풍으로 보는 조선의 모습

저 자	원 주 철
장 정	김 윤 일
교 정	조 경 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9(2020)년 11월 9일
발 행	주체109(2020)년 11월 12일

ㄱ—1488ㄷ

ISBN 978-9946-31-126-5